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운영에 대한
중학교 교사의 인식
- 제주도교육청 소속 학교를 중심으로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 및 교육컨설팅 전공

조 상 수

2019년 8월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운영에 대한 중학교 교사의 인식

- 제주도교육청 소속 학교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김 대 영

조 상 수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6월

심사위원장

이 인 치



위 원

梁鎭律



위 원

김 대 영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9년 8월



차 례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3
3. 연구의 내용	4
4. 연구의 제한점	5
5. 주요 용어	5
II. 이론적 배경	7
1. 교원업무의 개념	7
2. 교원 업무 경감	10
가. 교원의 업무 부담	10
나. 국가 단위 교원업무경감정책의 변화	12
다. 시·도 교육청 단위의 교원업무경감정책	15
3.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19
가.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의 개념	19
나.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운영학교 운영 실태	24
III. 연구방법	28
1. 조사 대상	28
2. 조사 도구	28
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29
IV. 연구 결과	32
1. 교원의 업무부담에 대한 중학교 교사의 인식	32
가. 교무행정업무의 양에 대한 인식	32
나. 업무영역별 수행비율에 대한 인식	33
다. 교무행정업무와 교육 활동 및 연구와의 관련성	34
라. 교무행정업무 처리 및 방법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 차이	35
2.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의 시행정도에 대한 중학교 교사의 인식	36
가.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에 대한 이해정도	37
나. 교육과정지원교사제 운영 여부에 대한 인식	39
다. 교육과정지원교사의 소속 교원과 인력에 대한 인식	39

라.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의 주요 추진방안의 시행정도에 대한 인식	40
3.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의 효과에 대한 중학교 교사의 인식	44
가. 공문서 처리량 변화에 대한 인식	44
나. 교육과정지원교사제의 교무행정업무경감 기여에 대한 인식	46
다. 행복교육 시장의 달 운영의 교무행정업무경감 기여에 대한 인식	47
라.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이 교무행정업무경감에 대한 부정적인 요인에 대한 인식 ..	48
4.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의 개선방안에 대한 중학교 교사의 인식	51
가. 교육과정지원교사가 필요한 부서에 대한 의견	51
나. 교육과정지원팀의 구성에 대한 인식	52
다. 교육과정지원팀 조직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	53
라. 교육과정지원팀 소속 교사에게 필요한 보상에 대한 인식	54
마. 교육행정업무처리 간소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방안에 대한 인식	55
5. 요약	56
V. 결론 및 제언	60
1. 결론	60
2.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	64
참고문헌	67
【Abstract】	78

표 차례

<표 II-1> 일반적인 학교업무	8
<표 II-2> 주체별 교원업무경감 동향 비교	12
<표 II-3> 정부의 시기별 교원업무경감정책	14
<표 II-4> 각 시·도별 교육청 교원업무경감 계획	17
<표 II-5> 교원들이 본연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교육여건 마련 설문	20
<표 II-6>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정책운영	20
<표 II-7> 제주도교육청 업무경감대책 변화	21
<표 II-8> 시도교육청 별 학급수별 학교 수	22
<표 II-9> 시도교육청 별 학생수별 학교 수	23
<표 II-10> A중학교 업무분장표	24
<표 II-11> B중학교 업무분장표	25
<표 III-1> 설문지의 영역별 구성 내용	28
<표 III-2> 설문지 회수 현황	30
<표 III-3> 응답자의 배경 변인별 구성 및 분포현황	30
<표 IV-1> 교무행정업무의 양에 대한 배경 변인 별 인식 차이	32
<표 IV-2> 업무영역별 수행비율	34
<표 IV-3> 배경 변인 별 교육 활동 및 연구와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 차이	34
<표 IV-4> 배경 변인별 교무행정업무 처리 및 방법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	35
<표 IV-5>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에 대한 이해에 대한 배경 변인별 인식 차이	38
<표 IV-6> 교육과정지원교사제 운영 여부	39
<표 IV-7> 교육과정지원팀의 소속 교원에 대한 인식	39
<표 IV-8> 주요 추진방안 시행정도에 대한 인식	40
<표 IV-9> 학년 중심, 교과 중심 학교 조직 재구조화 시행정도	41
<표 IV-10> 교육과정지원팀 구성 및 운영 시행정도	41
<표 IV-11> 공문서 처리방법 간소화 및 외부공문 처리 간소화 시행정도	42
<표 IV-12> 소통과 협력의 학교문화 조성 시행정도	42
<표 IV-13> 행복 교육 시작의 달 시행정도	43
<표 IV-14> 학교연수의 날 시행정도	43
<표 IV-15> 교육청의 교육정책사업 통합·축소 시행정도	44
<표 IV-16> 공문서 처리량 변화 차이	45
<표 IV-17> 교원행정업무 경감 효과	46
<표 IV-18> 행복교육 시작의 달의 효과	47

<표 IV-19>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의 부정적인 요인 인식 차이	48
<표 IV-20> 교육청의 지속적인 정책 추진 노력 부족	49
<표 IV-21> 교육청 부서 및 직속 기관의 협력 부족	49
<표 IV-22> 교육과정지원팀의 형식적인 구성	50
<표 IV-23> 교육과정지원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에 대한 인식차이	51
<표 IV-24> 각 부서별 교육과정지원교사제의 중요도와 시급도	52
<표 IV-25> 교육과정지원팀의 구성원에 대한 인식	53
<표 IV-26> 교육과정지원팀 조직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53
<표 IV-27> 교육과정지원팀 소속 교사에게 필요한 보상에 대한 인식	54
<표 IV-28> 교육과정지원팀 조직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55

그림 차례

[그림 IV-1] 각 부서별 교육과정지원교사제 중요도와 시급도	52
--	----

【국문초록】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운영에 대한 중학교 교사의 인식

제주도교육청 소속 학교를 중심으로 -

조 상 수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 및 컨설팅 전공

지도교수 김대영

교원의 행정업무가 과중하다는 문제 인식은 교육관계자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회구성원이 공통으로 갖고 있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본질적 업무인 수업지도와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왔다. 그런데도 학교현장에서 교원들이 체감하는 행정업무경감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최근 혁신학교의 등장과 함께 수업 혁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런 교육적 변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원의 업무 절감이 필수적이다. 이에 발맞추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2015년부터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의 시행 정도와 효과에 대한 중학교 교원의 인식 조사를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원행정업무경감 대책의 실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중·소규모학교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제주도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교원행정업무 경감 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중학교 교원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는 제주지역 중학교 중 무작위로 추출한 3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 도구를 이용하여 설문을 한 후 분석에 적합한 총 172부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교사들은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중 교무행정업무의 양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다. 학생생활지도부 소속 교사들의 교무행정업무의 양이 많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한, 교무행정업무가 교사의 교육 활동과 관련이 없다는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교육과정지원팀의 운영방법이나 교육과정지원팀 교사들에 대한 보상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시행 정도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 응답이 66.9%로 상당수의 교사가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을 이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50.6%의 교사만 교육과정지원교사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결과를 볼 때, 일부 학교에서 교육과정지원교사제를 형식적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보인다.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의 주요 추진방안 7개 항목 중 학교 조직 재구성, 교육과정지원팀 구성, 소통과 협력의 학교문화 조성, 행복교육 시작의 달 운영, 학교 연수의 날 운영 등은 시행 정도가 높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공문서 처리방법 간소화 및 외부공문 처리 간소화, 교육청의 교육정책사업 통합·축소는 낮게 평가하였다.

셋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의 효과에 대한 중학교 교사의 인식에 관한 연구 결과,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이 시행된 이후 공문서 처리량 감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하지만 부정적 응답에 '변화 없음'을 포함하면 공문서 처리량 감소에 대한 의견은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이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는 '교육청 부서 및 직속 기관의 협력 부족', '교육과정지원팀의 형식적인 구성', '학교 구성원의 정책이해 부족'을 지적하였다.

넷째,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의 개선방안에 대한 중학교 교사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학교에서 생활지도분야와 교무분야 지원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교육과정 지원교사제가 그 두 개의 분야에 가장 먼저 구성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많은 학교에서 교육과정지원팀의 구성원은 학교의 실정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외하고 행정실무사 배치를 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육과정지원팀에 소속된 교사에게 필요한 보상은 수업시수조정이 가장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교육과정지원교사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제주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학교에서 교사가 해야 할 교무행정업무를 세분화하여 담임교사

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업무를 부여해야 한다. 소수의 교사에게 과도한 희생과 과도한 보상이라는 현재의 교육과정지원팀의 구성과 운영방법에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교무행정업무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사의 전문성이 꼭 필요한 교무행정업무를 구분하고, 실제 학교현장에서 시행해야 한다. 교무행정인력의 업무처리 역량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연수와 매뉴얼의 제작 및 보급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에 대한 홍보와 실질적인 행정업무 감축이 필요하다. 교사의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으면 시행 이후의 효과도 크다. 업무의 총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청부서와 직속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 교무행정업무의 경감은 교사의 역량 강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으로 인한 업무 경감 효과가 교육력 증가로 연결되고 있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교원행정업무경감, 교육과정지원교사제, 교육과정지원팀, 교무행정인력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 산하 미래준비위원회의 미래전략보고서에서는 미래 인재의 변화에 따른 사회제도와 시스템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학교시스템 혁신과 더불어 교육내용과 교육방식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미래창조과학부, 2017). 이에 발맞추어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발표하였으며, 2017년 초등학교 1, 2학년, 2018년 중·고등학교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골자는 인문, 사회, 과학기술의 기초 소양함양이나 문·이과 통합교과 신설, SW 교육 필수화,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교과통합,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탐구학습 강조, 과정중심평가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새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정착, 그리고 공교육 정상화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배움 중심의 교수 활동, 수업 혁신 등의 교육 활동을 위해서는 교사-학생 간의 충분한 소통과 교사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정영수 외(2012)는 중학교 교사의 실제 업무량은 1681시간, 업무가동률은 98.8%로 나타났으며, 교사의 업무는 상당 부분 정신적 활동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일정 시간 이상 높은 수준의 사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볼 때 90%를 상회하는 업무가동률은 실제로 높은 수치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도 교사의 과중한 업무를 낮추고 직무수행 방식을 개선하여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다(정미경 외, 2013). 또한 이인희, 이지혜(2010)는 교원업무경감의 의미를 수업 외적인 업무를 경감하여 수업 활동에 전념하는 것과 수업을 포함한 교원 활동의 전문성 향상이라고 규정하고, 업무경감을 통해 교육의 체계적인 환경 및 여건개선이 함께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였다.

교원 행정업무경감대책은 1974년 각종 행사에 학생동원 금지 지침에서 시작하여, 교원 업무 간소화 지침을 발표하였고 교원 잡무경감을 통해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행정관리규정'을 제정·공포에 이르렀다. 이후 국민의 정부 교육

개혁 100대 과제 중 하나로 교원업무 경감 방안제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구축 및 시행에 이어 2012년 3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경감 방안’으로 교원지원전담팀 운영 및 학교보조 인력 통합 재배치, 교육환경조성, 업무경감 우수사례 확산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정하여 추진 하기에 이르렀다(이인희 외, 2010; 정미경 외, 2013; 이치호, 2017).

하지만 학교현장에서 교사가 인식한 업무 경감의 체감도는 기대보다 높지 않았고, 교사의 행정업무감소에 기여도와 교육적 성과에 대한 평가는 1%에 불과하였으며, 600여억 원을 들여 투입한 행정실무사의 업무는 행정실이나 교감의 업무를 떠맡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그동안의 업무경감대책의 한계를 보여주었다(이현미 외, 2015). 2015년부터 교원업무경감정책은 여러 가지 명목으로 시행 연구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같은 맥락이었다. 교원업무 중에서 행정업무의 경감으로만 국한하여 고용 창출과 댄질식 해결방안으로는 계속되는 학교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이치호, 2017). 이후 시도교육청 위주의 교원업무 경감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단위학교 중심의 정책으로 변화하였다.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주요한 업무 중 하나로 교원업무경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공문서 감축과 교육 활동 중심으로 학교업무부서 체제를 전환하고 있으며 담임교사의 업무 비율을 감축시켜나가고 있다. 본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제주도교육청의 경우 이석문 당시 제주 교육감 후보는 선거공약에서 교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2014). 당선 이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수업전념학년제’를 운영하였고(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6a), ‘3월 공문 없는 달’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개발·추진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6a). 특히 2018년부터는 ‘교육과정 지원교사제’를 핵심으로 하는 교육과정 중심학교를 지정·운영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8a). 또한, 교육과정 중심학교를 선정하여 담임교사에게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업무는 교육과정지원팀에서 전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8b). 하지만 앞으로 발생할 문제점도 적지 않게 예상해 볼 수 있다.

그 예로 경기도교육청의 혁신학교 중 20~30개의 혁신학교에서만 업무경감을 이루어냈으며 이들 학교의 성공 원인은 교직원들의 강한 유대감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이현미 외, 2015).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발간한 교육정책연구의 도내 교육중심학교 운영학교의 교직원면담을 보면 담임교사는 좋다고 하는데 업무 담당교사들은

너무 힘이 들며, 심지어 같은 교무실에 있는 담임교사와 업무지원교사 간 미묘한 기류가 흐른다고 하였다(강승태 외, 2016). 즉, 경기도와는 달리 제주도는 단위학교 업무와 관련하여 교사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교육부나 관계기관에 의해 사업은 매년 생겨나고 있어 교육과정지원팀이 처리해야 할 업무는 계속 증가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교육과정 지원교사제는 행정업무를 줄여 주 업무인 교육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와는 달리 수업 대신 행정업무를 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기간제교사가 수업하게 되는 모순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제주도는 다양한 규모의 학교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정책을 모든 학교에 적용할 때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현재 제주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중학교 교사들의 만족도와 인식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제주도교육청이 시행하는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을 통한 교원업무경감에 대한 효과에 관한 연구가 없었다. 따라서 이 논문을 통해 제주도교육청의 교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교육중심 학교 시스템 도입에 따른 교사들의 인식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탐색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주제인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정책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교원업무경감 정책에 대한 교사들의 전반적인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에 대한 중학교 교사들의 인식은 업무별, 담임 여부, 교육중심학교 지정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셋째,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시행이 교무행정업무 경감에 효과가 있는가?

넷째, 교원업무경감 정책이 현장에 정착하기 위한 제안할 점은 무엇인가?

3. 연구의 내용

교원업무경감 대책은 1979년 국무총리 지시 이후 교육부, 시·도교육청별로 다양하고 지속해서 추진해오고 있다. 주로 공문서 줄이기, 사무보조 인력배치, 수업시수 감축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정부 차원의 교원업무경감 정책을 많은 예산과 시간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체감하는 교원의 업무강도는 차이는 미미했다. 정부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교무행정지원인력을 배치하여 교원업무 일부분을 보조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업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업무보조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 와서는 학교조직 개편을 통한 교원업무경감 정책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교원업무경감 정책을 내놓고 시행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11년 교원행정업무경감, 2015년부터는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구축을 통해 발맞추어가고 있다.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은 다른 시도의 교원업무경감대책과 대동소이하다. 주요사항으로 학교조직 전환을 통해 학교업무를 교육 활동과 교무행정, 일반행정으로 나누고 교육 활동은 담임교사, 교무행정은 교육과정운영팀이 맡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현장에서 교육 활동업무와 교무행정업무가 중첩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면서 교원 간 갈등과 불만을 일으키고 있다. 다른 시도의 대규모 학교에서 효과가 있었던 정책이 소규모학교가 많은 제주도에서도 효과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예산을 투입하여 행정실무원, 기간제 교원 등을 행정지원인력으로 투입하는 사업이 교원의 업무 경감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에서 강조하고 있는 학교조직 재구조화에서 교육 활동업무와 교무행정업무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기존 문헌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 실제 교원들이 얼마나 업무를 경감하고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설문 조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학교 규모에 따라 소속 교사들의 만족도를 살펴봄으로써 제주도에 맞는 정책인지 고려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기존의 교원업무경감 정책연구와 비교하여 구체적 실증 연구가 부족했던 제주도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선행연구의 지역적 한계를 일부 극복했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 중학교에 한정에서 연구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전국에 일반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교육중심 학교시스템구축 사업을 시작한 지 5년 이상 경과 하여 조사 대상이 체감하는 효용성이 정책 도입 초기와 다를 수 있어 사업 시행 이전과 비교하기 어려울 수 있는 한계가 있다.

5. 주요 용어

가.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교육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다. 교육 활동 중심 학교 기반 조성, 교육 활동 중심 지원체제 구축, 참여·소통·공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 조직을 교육과정지원팀과 교육과정운영팀으로 재구조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원 업무 경감 정책’과 더불어 교원이 본연의 업무를 되찾아가기 위해 학교문화를 전환하기 위한 정책이다(강성기, 2018).

나. 교육과정지원팀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및 교육 활동 전념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학교조직을 개편하여 학교에 필요한 교무행정 업무를 전담 및 지원을 위해 신설된 학교 조직이다. 구성모델에 따라 ‘지원형’, ‘전담형’, ‘통합형’으로 구분된다. ‘지원형’은 기존 교무행정 중심의 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별도의 교무행정지원팀을 구성하여 교무행정 일부를 지원한다. ‘전담형’은 학교조직이 교육 활동 중심으로 재편성된 경우 교무행정을 전담하는 팀을 말한다(조상식 외, 2016). ‘통합형’은 교무행정팀과 행정실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유형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2017년부터 ‘교육과정지원팀’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다. 교육과정운영팀

교육과정운영팀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학교업무를 교육 활동과 교무행정, 일반행정으로 구분했을 때 교육 및 학급운영업무를 담당하는 교사, 즉 담임교사를 지칭한다. 교육과정운영팀의 명칭은 교육청마다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라. 교육과정지원교사제

‘교육과정지원교사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통용하는 용어로 초등학교의 ‘수업지원교사제’와 같은 개념으로 중학교의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운영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다. 교육과정지원교사는 보직교사(학년부장 제외)로 수업시수를 10시간 이내로 줄이고 교무행정업무를 상당 부분을 담당하여 담임교사들이 ‘교육 활동’과 ‘학급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사를 말한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7a).

II. 이론적 배경

1. 교원업무의 개념

교원업무의 개념은 다양한 시각과 내용으로 정의되었다. 먼저 교원업무에 대한 법률규정은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에 제시되어 있으나, 교원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법령은 드물다(신현석 외, 2006). 교원업무의 법적 근거는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기본법에 있다. 교육기본법 제14조 2항에는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조 3항에는 ‘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20조 교직원의 임무 규정에 따르면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규정하여 교원의 주된 직무인 학생 교육을 명시하고 있다(배문영, 2015).

교원업무의 개념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정의하고 있다. 먼저, 김종철(1970)은 근무 부담을 ‘본질적 의무로 간주할 수 있는 교수 활동’을 의미하며, 광의 개념으로는 ‘육체적 부담을 수반하는 수업 및 교수 이외의 활동과 정신적 부담을 수반하는 사명감, 책임감, 태도 그리고 물리적 측면의 학급 규모 시설, 근무 시간, 법규상의 복무, 휴가 그리고 기타 사회적 요구 때문에 실시되는 제반 활동 등을 교사로 하여금 시간을 할애하게 하는 일체의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김종철, 1970; 주현준, 2015).

서정화(1981)는 교사의 직무를 필수업무, 보조업무, 잡무로 구분하였다. 교원의 필수업무는 수업지도, 특별활동 지도 등을 포함한 교육과정 운영이 주가 되는 업무를 의미하며, 보조업무는 교육과정 운영에 직결되는 업무이지만 단순한 교육 활동을 전개하는데 필요한 보조적 업무로서 교수-학습활동과 관련된 업무처리, 자료 매체준비, 학력 평가, 시설·재정관리, 대외 관계업무, 기타 행정적 지원 활동 등을 포함한다. 필수업무와 보조업무는 교육 활동을 저해 또는 방해하는 잡무와 구별된다(이인희 외, 2010).

박덕규 외(2003)는 교사 업무를 교육청과 학교 수준으로 구분하고, 업무영역을 수업 운영, 생활지도, 학생평가, 자기 연찬, 학교행사 참여, 학급경영, 학교행정, 가정 및 사회 활동 영역으로 제시하였다. 김이경 외(2005)는 수업지도, 학생지도, 학급경영, 학교 교육 과

정 편성·운영, 학부모 및 대외관계, 학교경영지원, 전문성 신장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신현석 외(2006)는 학교업무를 교무실과 행정실이 담당하는 업무로 크게 나누고, 교사의 업무를 학교 부서별 업무분장에 의해 핵심업무와 부수 업무로 구분하였다. 교무실 업무에는 필수업무, 보조업무, 잡무 등이 포함되며, 핵심업무는 교원이 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즉 업무 수행에서 교육적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교육 활동을 설계하고 진행하는 일이라고 하였다. 반면에 부수 업무는 교육적 판단이 필요치 않은 업무, 반드시 교원이 전담하지 않아도 수행 가능한 업무, 핵심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동반 업무로 정의하였다. 참교육연구소(2012)는 처음으로 교원업무정상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교육영역의 업무와 행정사무, 기타사무로 교원 업무를 구분하였다.

2012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교의 업무를 <표 II-1>과 같이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단위학교의 업무 유형을 크게 교육 활동, 교무행정, 일반행정으로 구분하였다. 교육 활동은 교사의 본연의 업무로서 교육 및 학급운영 업무, 교무행정은 교육지원 업무, 일반행정은 학교운영 관련 행정업무로 분류하였다(교육부, 2012).

<표 II-1> 일반적인 학교업무

구 분	세부 내용
교육 및 학급운영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활동 > ■ 수업 : 수업 준비, 수업 실시, 학습평가, 교재연구 등 ■ 생활지도 : 생활습관 지도, 상담, 진로지도, 학교폭력 예방 지도, 부적응학생 지도 등 ■ 학습지도 : 수업 전후 학습지도, 방과후 지도, 학생 질문 응답 등 < 학급운영 > ■ 학급경영 : 학급행사 계획 및 운영, 교실 기자재 관리, 학급회의 운영, 학급 관련 통계처리 등 ■ 학부모 관계 : 학부모 상담, 공개 수업 등 ■ 특별활동지도 : 학생회 운영, 학급 봉사활동 운영 등
교육지원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무기획 : 학생부 관리 총괄, 계약제 교원 관련 업무, 학교평가 업무, 교육과정편성 총괄, 시상, 학교홍보 등 ■ 연구장학 : 연구 시범학교 업무, 교과서 관련 업무, 수업 공개, 직무연수

	<p style="text-align: center;">업무, 학습자료 구입 및 관리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지도기획 : 교복 관련, 학생안전 관련, 상벌점제 운영, 교내외 환경미화, 유해환경 정화 활동, 학교폭력 사안 처리 등 ■ 전산 관련 : 학교 NEIS 총괄, 정보공시제 업무, 정보화 기자재 관리, 컴퓨터실 관리, 홈페이지 운영 등 ■ 방과후 학교 운영 : 방과후 학교 계획수립, 방과후 학교 운영지원 등 ■ 대외관계업무 : 교육청 업무협조, 교외행사 참여, 대외봉사활동, 각종 설문조사 참여 등 ■ 기타 : 학교 일반사항에 대한 공문처리, 학부모회 운영, 보건·급식 관리 총괄, 교내시설 및 설비 관리 등
일반행정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 회계, 계약, 급여, 총무(시설관리·차량 관리·일반서무·증명발급·민원업무·보안 관리·방재), 문서관리, 재산관리, 학교행정지원 등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2012)

이상 선행연구를 보면 교원의 업무는 교육 활동(수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업무와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 그리고 잡무로 구분하고 있다.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 일부와 잡무는 교사들의 핵심직무를 방해하며, 업무 과부하로 인한 불만족을 발생시킨다(신상명 외, 2007; 이인회 외, 2010; 박선형·이상규, 2012; 정영수 외, 2012).

특히, 교사의 잡무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교사들은 ‘교육 활동에 직접 관련이 없는 행정업무’, ‘공문처리에 관한 내용’, ‘공문 가운데서 단순보고’, ‘통계’, ‘통제’, ‘수업 등 교육 활동과 무관한 불필요한 잡무성 공문처리’, ‘시간의 여유를 주지 않고 급히 처리해야 하는 공문의 정도’ 등을 잡무의 영역으로 파악했다(신상명, 2009). 하지만 잡무의 범위에 들어가는 일들을 분류해 내기가 힘들다. 교사의 업무의 많고 적음의 차이, 수업과 관련이 있거나 불필요한 일이라고 인식하는 정도의 차이, 업무 수행이 곤란하여 부담이 느끼는 정도의 차이 등에 따라 잡무의 영역이 매우 다양하게 해설될 수 있기 때문이다(김종철 외, 2013).

2. 교원 업무 경감

가. 교원의 업무 부담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를 논할 때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교원 업무부담에 관한 내용이다. 김경희(1998)는 교원 업무부담의 협의 개념으로 “교원이 본질적 의무로 간주할 수 있는 교수 활동”이며 광의의 개념은 “육체적 부담을 수반하는 수업 및 그 밖의 활동, 정적인 부담을 수반하는 사명감, 책임감, 태도 그리고 물리적 측면에서의 학급 규모, 시설, 근무 시간, 법규상의 복무, 휴가, 기타 사회적 요구 때문에 지워지는 제 활동을 교사로 하여금 시간을 할애케 하는 일체의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정나나, 2012). 하지만 교사의 업무는 개념적으로 뚜렷하게 구분되기보다는 교사-학생이라는 독특한 관계적 속성에서 빛어지는 업무 경계의 모호함과 업무 범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업무 과중에 시달리게 되기도 하고 혹은 비본질적인 업무들로 인해 본질적인 업무들이 침식되고 방해받게 되는 도착적 양상이 초래되기도 한다(정영수 외, 2012).

교원 업무부담을 초래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업무부담 요인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학교 자율화, 단위학교 책임경영제 시행으로 인한 단위학교의 업무 과부하, 지식사회로 이행하게 되면서 수반되는 각종 사회적 문제에 대해 학교의 역할과 비중이 커졌다고 지적하면서 학교 조직의 특성으로 불필요한 업무를 양산하여 결과적으로 업무부담을 발생시킨다고 하였다(정미경 외, 2012).

또한, 교사들은 가정 붕괴, 아동학대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행동 장애가 있는 아동들을 돌보고, 상담을 제공하고, 학부모나 사회복지사, 외부 관련 기관과 계속해서 연락하고 협력해야 하는 추가 부담을 지게 된다. 그렇다고 교사들에게 전통적으로 부과된 부담이 감소하는 것도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정영수 외, 2012).

더욱이 최근 행정정보시스템(NEIS) 개편으로 정보처리망을 이용하여 공문접수 및 처리를 하고 있다. 업무경감을 위해 도입한 시스템이지만 교육지원청과 외부기관은 공문접수와 함께 즉각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교사의 업무를 가중하고 있다. 시간상으로 촉박하게 접수되는 공문처리를 위하여 소요 되는 시간은 결국에는 교원의 수업 결손과 정신적 피로감을 가중하는 부담 요인으로 남는다(박선형 외, 2012). 또한, 학교 역할과 기능이 변화하면서 교사에게 주어지는 직무가 증대되고 있는데 가령, 돌봄 교실이나

방과후 학교, 자유학기제 등 각종 교육정책이 시행되면서 외부에서 주어지는 업무가 늘어나고 있으며, 학교폭력이나 인성교육 등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할도 늘어나고 있다(정영수 외 2011; 김위정 외, 2016).

박영숙 외(2003)의 학교 급별 근무 시간 대비 수업 활동 시간의 비율을 보면 중학교 교사의 경우 43.7%에 그치고 있고 고등학교 교사는 39.4%로 수업 중심의 근무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밝혔다. 영국의 경우 수업 활동에 관련된 시간 비중이 60% 정도로 구성되며 주당 3시간은 수업 준비시간으로 학생상담, 학부모 방문, 각종 회의 등으로 참석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교되고 있다(이인회 외, 2010).

신현석(2011)은 경감해야 할 업무를 정부, 교직단체, 학계로 구분하였고 각 이해 당사자별 관점의 차이를 제시하였는데 관련 내용은 <표 II-2>와 같다.

<표 II-2> 주체별 교원업무경감 동향 비교

구분	정부	교직단체	학계
업무 경감 영역에 대한 개념	- 교육과정 운영, 생활지도, 학교 · 학급경영, 연찬 활동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 활동 이외의 영역	- 교사의 핵심업무인 교육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고 교원에게 불필요한 업무를 증가시켜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업무	- 교육 활동과 교무행정 업무를 제외한 일반행정 업무
문제 인식 및 방향	- 학교 교육의 성과 제고 - 학교업무의 효율성 제고 - 인사 배치를 통한 업무의 간소화	- 학생의 학습권 보장 - 교원의 전문성 신장	- 교육여건 개선 - 교원의 전문성 향상 - 교원의 책무성 제고
방안	- 공문서 감축 - 학교 전자결재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 교무-행정지원능력 강화 - 인턴 교사, 순회교사, 사무보조 및 교무행정 지원 인력배치 - 교원동원 행사 업무조정 - 교원정원 증원 - 부장교사 교원 수업시수 감축	- 교원업무총량제 도입 - 행정보조인력 확대 - 교원조직구조 이원화 - 행정 전문화 - 전자결재시스템 및 경영정보시스템 도입 - 지역교육청 학교지원 센터로 역할 재정립 - 관리자의 잡무경감노력평가제 도입 - 교원 정책 검증 의무 기간제 도입	- 교원직무 기준 설정 - 교사들의 직무부담과 직무 강도에 대한 재인식 - 교원이 비본질적 직무에 대해 사무보조 인력이나 전문인력에게 분담 - 학교 행정직원과 교사 간의 협력관계 확립

출처: 신현석, 2011

정부는 교육과정 운영, 생활지도, 학교 및 학급경영, 연찬 활동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 활동 이외의 영역을 경감해야 한 업무로 보고 있고, 교직단체는 교육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 비효율적인 업무, 학계는 교육 활동과 교무행정업무를 제외한 일반행정 업무를 경감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신현석, 2011).

나. 국가 단위 교원업무경감정책의 변화

1974년 각종 행사에 학생동원을 금지하는 국무총리 지시를 시작으로 국가 차원의 교원 업무경감대책이 최근까지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1995년 5.31. 교육개혁 이전에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5.31 교육개혁을 계기로 정부는 교사가 가르치고 연구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과 관련 없는 잡무를 경감하고, 교무실 사무자동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하지만 정치·사회적 관행과 교육행정 지원체제의 미흡 등으로 인해 교원들이 체감하는 업무경감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교원의 불만은 커졌다. 이후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었지만,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인지도가 낮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등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신현석 외, 2012). 1990년대 말부터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 ‘학교붕괴’, ‘교실 붕괴’ 등 공교육 부실이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특히 2003년 OECD 교원정책검토단에서 교원 전문성 신장을 촉진할 수 있는 기제가 우리나라에 없음을 지적하면서 교원평가제 도입 및 교원업무경감, 행정 지원인력 증원, 행정 잡무 처리 간소화, 직무 기준 개발을 권고하여, 교원업무경감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이인희 외, 2010). 그리하여 2003년에는 전자정부 11대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업무처리방식을 개편하고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 NEIS가 시행되고 2005년에는 교원평가제 도입과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주당 수업시수를 초등학교 20시간, 중학교 18시간, 고등학교 16시간으로 하기 위한 장기목표를 수립·추진하게 되었다. 2009년 말 학교조직체제 개편방안으로 교무업무 처리 전담부서 구축과 관련한 과제를 제시하고, 2010년에는 교무행정업무처리모형을 적용한 시험학교를 운영하였다.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였고 교육지원전담팀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상 정부의 업무경감정책은 효율성과 수업전문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시도였으나, 학교 역할 증대, 정부 및 시·도교육청의 각종 시책사업 추진 확대, 국회나 시의회의 자료요구 증가 등으로 업무 총량이 늘어나고 있어 교사의 업무 과중이 문제시되고 있다. 또한, 교원업무전담팀의 구성의 경우 학교별 특성에 따라 운영될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시·도교육청에 대한 평가로 정책의 실행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이치호, 2017).

<표 II-3> 정부의 시기별 교원업무경감정책

연도	주요정책	내용
1974.1.28	각종 행사에 학생동원 금지 지침	- 국무총리 지시
1979.11.8	교원 업무 간소화 지침	- 문교부
1981.12.28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 원 잡무경감에 대한 지시(국 행일100-650)	- 국무총리 지시
1982.3.17	‘교육행정관리규정’ 제정 · 공포 (교육부 훈련 제364호)	- 교원 잡무경감을 통한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학교 교육 정상화 도모
1995.5.31	교육 개혁조치 발표	- 수요자 중심교육, 열린 교육, 특기· 적성교육 등 폭넓은 교육 활동 요구 수용
1997.9	‘교원의 잡무 경감 대책’ 수립 · 추진	- ‘학교 공문서 10% 감축의 해’ 로 선언 - 교원 업무 경감을 ‘국민의 정부 교 육 개혁100대 과제’ 의 하나로 설정
1998.7	교원업무 경감 방안제시	- 공문서유통량과 잡무경감
2000.4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제 정	- 행사 동원금지, 자료제출, 기준일 제 시 - 2001년 일반 행정영역 구축
2000.9 -2001.3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처리절차 개 선 및 정보화 전략계획수립	- 2003년 교무, 학사 등 5개 학교행정영 역 개통 - 2006년 대국민 민원서비스 구축 및 개통 - 2008년 학교정보 공시 시행
2001.5	‘교원업무경감방안’ 마련 · 시행	- 사무보조 인력배치
2001.7	‘교직발전종합방안’ 확정 · 시행	- 교원정원 증원 - 장기 유학
2003.4	NEIS시행	- 전자정부 11대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업무처리방식 개편을 통한 교원업무 경감을 위해 NEIS를 2002년 말 구축 하여 2003년 4월 본격 시행
2005.11	‘학교 교육력 제고 사업 추 진계획’ 수립	- 교원평가제 시범운영 - 교원 수업시수 감축 - 교원 직무 기준 정립 및 교원 지원인 력 증원 방안 발표 - 학교행정인력배치: ‘2014년까지 연간 1,600~1,700명 정도 증원

연도	주요정책	내용
		- 대학생 보조교사제도 활성화: 교육과 대학 간 협약 체결
2006.5.9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한 7가지 대책’ 발표	- 주당 수업시수 감축 - 교무행정지원인력 배치: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1~2명 배치하여 15,300명 배치 - 학교전자결재 및 전자문서유통시스템 구축
2006.8 -2008.11	학교 교무행정지원인력 시범 배치	- 2006년 48개교에 60명 배치 - 2007년 423개교에 423명 추가
2008.11	‘교육 규제 관련 공무서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정	- 공문서 관리 등 교원업무감축에 관한 근거 마련함
2008	교원 및 공무원 총전원 동력	- 보조 인력 증원이 어려움
2009.10	‘교사의 수업 전문성 제고 방안’ 확정·발표	- ‘학교 내 행정업무처리체계 개편을 통한 행정업무경감’ 과제가 결정됨
2009.11	‘교사의 수업 전문성 제고 방안을 위한 교원업무경감대책’ 수립	- 정책 연구진과 자문팀 구성 - 2010.3 시범학교 운영
2010.4	교원 업무 경감 대책 발표	- ‘단위학교 통계공문처리 부담 제로’ 실현: 통계처리전담기관, NEIS 등 시스템 기초자료 활용 - 단위학교 공문 50 이상 감축 - 순회교사 인턴 교사 증원하여 교원 간의 업무 편중 완화(당초 7,000명에서 10,000명으로 3,000명 증원)
2011	전자문서시스템 전면 도입	- 전자문서시스템 도입을 통한 업무처리 절차 간소화
2012.3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경감 방안	- 교원지원전담팀 운영 및 학교보조 인력 통합 재배치 - 불필요한 업무의 폐지 및 간소화 - 우수사례 공유 체제 마련 및 컨설팅 - 지원

출처: 이인희 외(2010); 정미경 외(2012); 이치호(2017) 수정·보완

다. 시·도 교육청 단위의 교원업무경감정책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의해 교원 행정업무경감을 위해 다양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2012)의 ‘교사

의 행정업무 부담경감 방안'을 근거로 교원업무 경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의 교육청에서는 교무행정지원팀 구성, 교무실무원, 공문서 감축, 업무경감 만족도 조사 등을 공통으로 추진되고 있다. <표 II-4>는 시·도교육청 교원업무경감 계획을 정리한 것이다. 각 교육청의 계획은 대체로 비슷한 시기와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학교가 대다수인 서울시교육청과 교사업무경감정책을 선구적으로 실시한 경기도 교육청, 본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제주교육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교무행정전담팀을 구성하고 구성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며 2014년 10월 기준 구성비율은 60%를 넘고 있다(이상철, 2015). 또한, 공문서 감축 정책으로 매주 수요일 '공문서 없는 날'을 시행, 불편한 공문서 신고제 등을 실시하였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사 행정업무경감 3단계 이행 지침을 시행하였다. 1단계 이행 조치계획으로 2010년 '교원 행정업무 경감 관련 요구사항을 이행하는 계획'이 시행되었다. 학교, 교육지원청, 도교육청이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이행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선정해 공문을 시행한 것으로 타 교육청과는 구별되는 혁신적 사례라 할 수 있다(원세연 외, 2013). 2011년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교사의 행정업무 제로화'를 선포하면서 3단계 시행지침인 '교원행정업무 관행 개선 지침' 시행하였다. 특히 3차는 '지침' 성격을 가져 이를 위반한 학교는 행정조치도 가능하도록 이행의 필수성을 강조하였다(원세연 외, 2013). 이 과정에서 수업 전념 학교문화 확산을 위해 학교조직 효율화 시범학교를 운영하였는데 이는 교무행정과 일반행정 간에 틈을 줄이고자 행정조직 간 공간 배치를 효율적(최단 거리 및 소통구조)으로 하도록 하였다. 2012년 교무보조를 행정실무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모든 학교에 1~2명 증원 배치되어 2013년 기준으로 학교당 3.57명이 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도 타 교육청과 비슷한 정책을 펼쳐왔다. 2011년부터는 교원행정업무경감 추진 T/F팀이 구성되었고 교원행정업무지원팀이 운영되었다. 이후 2014년까지 같은 정책이 지속해서 추진되었으나 교육부의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경감 방안'의 틀에서 벗어 나지 못하였다. 2015년 이석문교육감 취임과 함께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이라는 용어로 교원업무경감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은 다음 장에서 다루려 한다.

<표 II-4> 각 시·도별 교육청 교원업무경감 계획

교육청	년도	계획	주요 내용
서울시교육청	2011	교원업무 정상화 추진계획	- 교육 활동 중심의 합리적 교원 업무분담
			- 교육행정업무전담팀 구성 및 운영
	2012	교육 활동 전념을 위한 학교체제 구축	- 외부공문 처리 절차 간소화
			- 별도 기안 및 결재 생략
			- 단위학교 행사 폐지 및 축소
			- 위임전결 규정 정비를 통한 내부결재 축소
2013	단위학교 교원 업무 경감 정책	- 법정 위원회 외 각종 위원회 통폐합	
		- 법정 장부 이외의 장부 간소화	
2014	교원행정업무경감 추진계획	- 교무행정 지원사의 효율적인 활용	
		- 학교 행정업무 경감 지원	
2015	학교업무 정상화 종합 계획	- 공문서 생산 유통체제 개선	
		-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운영 활성화	
경기도교육청	2009	'각종 행사에 동원금지 지침'	- 학교업무 재구조화
			- 교무행정업무전담팀 구성·운영
2010	'교원 행정업무경감 관련 개선사항 요구 이행계획'	- 공문서 생산유통 체제 개선	
		- 학교업무 구조 개선	
2011			- 교무행정업무의 전담화
			- 학교평가 통합(학교 자율경영확대 및 업무 경감)
2012			- 공문서 20% 감축
			- 교육행정지원센터 구축·운영
2013			- 교무행정지원사 확대배치 및 연수 실시
			- 교무행정업무의 전담화
2014			- '공문서 없는 날' 지정 운영
			- 불편한 공문서 신고제
2015			- 교육정책 정비 및 공문서 감축
			- 교육 활동 중심학교 업무 재구조화
2016			- 교육지원 업무 감소화
			- 학교업무 정상화 추진체제 구축·운영
2017			- 교육감 지시, 교원행정업무경감 종합 계획 발표
			- 여건 조성

	2011	교원행정 업무 경감 관행 개선 지침	- 관리자의 관심 - 결재체계 간소화 - 전결 규정 정비
	2012	교육행정 업무 효율화 방안	- 학교조직 효율화 시험 운영학교 - 교수학습 지원 조직과 학교행정 지원인력으로 이 원화, 수업 혁신 중심으로 개편
	2013	‘교사행정업무 경감 관행 개선 지침’	- 공문 없는 날 지정 - 교원행정업무 경감 매뉴얼 - 각종 통합위원회, 전결 규정, 이중결재 및 종이 출력 금지 등
	2015	경기교육 업무 효율화 추진계 획	-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조직문화 개선으로 전환 -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공문 생성 모니터링, 단위 학교 행정업무 경감 관련 컨설팅
	2016	교원업무 정상 화 추진	- 민주적 회의와 소통,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문화 개선, 수업과 학생 생활교육에 전념 등
제주도교육청	2011	교원 행정업무경 감 계획	- 공문서 감축에 의한 업무처리 간소화: 업무관리시 스템 게시판 활용, 맞춤형 통계분석시스템 활용, 학교 공문서유통량 감축 우선 시행 - 공문서 감축 계획 시행을 위한 모니터링제 운영 - 교원행정업무지원팀 구성 - 사무분장을 통한 교사의 업무분장 평준화 - 정보시스템 통계 활용: 본청 내에 각종 통계자료 를 이용 - 위임전결에 의한 업무처리 간소화
	2012	2012년도 교원 행정업무 경감 계획	- 학교의 각종 위원회 정비: 법정 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 통폐합이지 - 업무시간 중 출장 감축 - 유연한 학교조직 운영, 업무의 명확화, 표준화 - 연구·시험학교 업무 축소 - 교원 행정업무 경감 자문단 운영
	2013	2013년도 교원 행정업무 경감 계획	- 교원의 업무시간 중 출장 최소화 - 학교의 각종 위원회 정비 - 에듀파인 개선 - 교원 행정업무 경감 자문단 개편 운영
	2014	2014년도 교원행 정업무 경감 계 획	- 2013 교원행정업무 경감 계획과 동일함.

출처: 김치수(2012); 주현준(2015); 변원목(2016); 강충호(2016); 경기도교육청(2013)을 수정·보완

각 시도교육청의 업무경감대책을 종합해보면, 첫째 공문서 감축으로 모든 시도에서 우선적으로 불필요한 공문서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문 처리를 간소화하고 있다. 둘째, 인력지원으로 교원의 업무를 낮추고 있다. 이를 위해 업무를 표준화하고 형평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셋째로 관리자 인식 제고이다. 교원업무 경감 계획을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교장 및 교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를 확대하고 위임전결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주현준, 2015).

최근에는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청과 학교 단위로 구분한 교원 업무 경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도교육청별 업무경감정책 추진내용을 종합한 선행연구를 보면 상당한 부분에서 유사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 유사점으로 교원업무 정상화 추진체제 구축, 교원업무정상화지원행정 강화, 학교의 일부 업무 교육청 이관, 자료제출 공문 표시제 시행, 공문서 생산의 질 제고 및 유통량 감축, 수요일 출장 및 공문 없는 날 운영, 학교업무 매뉴얼 활용, 학교조직 재구조화, 교육행정지원팀 구성 및 전문성 강화, 3월 교원의 교육과정과 학생이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공모사업, 학교평가, 장학 및 감사시스템 개선 등이 있다(강성기, 2018).

3.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가.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의 개념

본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15년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구축계획을 발표한다. 이는 2014년 당시 이석문 교육감후보의 선거공약에서 시작한다. ‘교원들이 본연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교육여건 마련’이라는 공약과 함께 ‘교무행정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교사 행정업무 제로화를 실현’이라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2014). 교육감 취임 이후 교원업무경감정책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2016년 교육정책 관련 설문 조사 중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대한 설문결과를 보면 중학교 교사의 21.5%가 담임교사 행정업무 제로화, 11.8%가 학교업무 자체조정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힘입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2018년부터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표 II-5> 교원들이 본연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교육여건 마련 설문

		학교업무 자체조정	교육청 사업축소	수업 전년학년 제 확대	담임교사 행정업무 제로	행정실 무사 배치	관리 성과 지표 내부결재 비율 적용	교원침해 사안 적극 대처	기타
중학 교	인 원	23	52	8	42	46	2	22	0
	비 율	11.8	26.7	4.1	21.5	23.6	1.0	11.3	0.0

출처: 고동현(2016)에서 수정·보안

하지만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은 완전히 새로운 정책이라기보다는 다른 시도의 우수경
감사례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의 정책은
<표 II-6>과 같다.

<표 II-6>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정책운영

연도	계획
2015	공문서 처리방법 개선(공문서 부담사례 신고제) 학교업무의 교육청 이관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구축 「제안 게시판」 운영 연구학교 운영의 간소화 교무업무전담팀 구성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구축 「모니터링단」 운영 학교의 각종 유사 위원회 통합 운영 학교 위임전결 규정 정비 학교 계약업무 지원 학교감사 방법 개선 교직원 대상 교육청 회의 간소화
2016	학교업무 재구조화(교무행정전담팀 구성) 정책사업 감축 수업전년학년제 운영(초등학교) 부서업무 통합 전달 주간 운영 학교운동장 통합관리 학교의 각종 유사 위원회 통합운영안 제공

	SW 일괄구매
2017	학교 교육계획 및 교육과정 수립 주간 운영 '공문 없는 3월, 아이들과 함께' 운영 학교문화 개선
2018	학교 연수의 날 운영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운영학교 선정·지원 각종 정보시스템 구축 공문서유통량 감축

출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1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16b);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1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18b)

2015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은 2011년에 발표한 교원업무경감대책과 비교하면 상당 부분 달라진 점이 많다. 달라진 정책의 차이는 <표Ⅱ-7>와 같다.

<표Ⅱ-7> 제주도교육청 업무경감대책 변화

	교원업무경감(2011~2014)	교육중심 학교시스템(2015~2018)
목적	교원업무 경감	학교문화 개선
담당 부서	교원 인사과	정책 기획과
조직전환	교육 활동·교무행정, 일반행정	교육과정운영팀, 교육과정지원팀, 일반행정
교원행정지원인력	과학실험보조원, 전산 보조원 등	지방공무원, 행정실무원, 기간제 교원 등
학교업무지원	-	학교업무의 교육청 이관, 학교 계약업무 지원, 학교감사 방법 개선
기타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 개선	게시판(자료실, 제안 마당, 개선방 등) 운영, 인사 시기 조정, 통합전달 주간 운영 등

출처: 강성기(2018)에서 수정·보완

이전의 교원업무경감대책과 다른 점으로는 '교원업무경감'의 목적은 교원업무경감 자체였다면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에서는 학교문화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교무실

과 행정실로 구분되었던 조직을 교육과정운영팀, 교육과정지원팀, 일반행정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방공무원, 행정실무원, 기간제 교원 등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구축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공문 없는 달’ 운영과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운영학교 지정’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공문 없는 달’ 운영은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의 ‘공문 없는 날’과 비슷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제주교육청의 정책은 3월 한 달 동안 교육청에서 학교로 발송되는 공문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학교 자체공문생산도 제한하여 학년 초 교육과정 운영 안정화에 기여하고 공문서유통량을 줄여 행정업무를 덜어 주고자 한다는 점에서 다른 시도의 정책과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공문서가 아닌 메신저와 유선전화로 업무가 진행되는 점, 3월이 아닌 2월과 4월에 더 많은 공문이 집중된다는 점, 학교 자체 문서생산을 지양하고자 종이 문서나 메모 기능을 이용하여 문서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운영 정책은 담임교사 업무를 배정하지 않고 보직교사와 비담임이 교무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과정지원교사제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는 혁신학교의 운영방식을 받아들인 것으로 생활지도와 수업 지도라는 본질적인 직무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원업무경감정책의 목적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적지 않다. 먼저 제주도는 대규모 학교보다 중·소규모학교가 주를 이루고 있다. 제주도는 6학년 이하 학교와 학생 수 100명 이하의 학교가 경기도와 서울시에 비교하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II-8>와 <표 II-9>는 학급수와 학생 수별 학교 수를 정리한 것이다.

<표 II-8> 시도교육청 별 학급수별 학교 수

학급수	6학급 이하	7학급 ~12	13학급 ~20학급	21학급 ~29학급	30학급 이상	총계
제주도	20.9	30.2	16.3	23.3	9.3	100
서울시	0.5	3.6	37	40.4	18.5	100
경기도	8.5	13	29.4	32.8	16.3	100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2017); 경기도교육청(201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17)

<표 II-9> 시도교육청 별 학생수별 학교 수

학생 수	0~100	101~300	301~600	601~900	901 이상	총계
제주도	18.6	32.6	18.6	23.3	6.9	100
서울시	0.2	5.2	53.4	30.5	10.7	100
경기도	6.6	12.3	34.1	30.5	16.5	100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2017); 경기도교육청(201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17)

대규모 학교의 경우 보직교사와 비담임 교사의 수가 많으므로 교육과정지원교사제가 별다른 무리 없이 운영될 수 있다. 하지만 소규모학교의 경우 상황이 다르다. 학교업무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공통으로 수행되는 업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교원의 업무부담은 소규모학교의 경우에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이인희 외, 2010). 소규모학교의 경우 담임교사를 제외하면 5~8명의 교사가 학교의 모든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더욱이 최근 자유학년제, 안전업무, 꿈·끼 탐색주간 운영, 무단결석 학생 관리, 소규모 수학여행 운영 등과 같은 업무가 추가되고 앞으로도 교육부 및 관계기관이 만들어 낼 새로운 업무가 추가된다고 할 때 중·소규모학교에서 운영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정지원교사제는 대다수 교사의 행정업무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정책이지만 운영이 원활한 대규모 학교에만 효과가 집중된다고 할 수 있다. 소규모학교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할 때 소규모학교 학생들에게는 교원업무경감에 따른 혜택이 적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소규모학교 학생들이 교육적으로 차별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운영을 위해 2명의 기간제교사가 지원되고 있다. 교육과정지원체로 업무가 늘어난 교사의 수업시수를 10시간 내외로 줄이고 부족한 수업시간을 기간제교사가 맡게 하고 있다. 교사의 본질적인 업무인 수업시간을 줄이고 교무행정업무가 주업무가 되는 비교육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더욱이 중·소규모학교의 경우 수업시수가 적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지 못할 경우 순회교사의 수업 지원을 받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교육 중심 학교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순회교사는 주로 비담임 교사가 지원하고 있다. 업무량이 많은 비담임 교사의 업무 과중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순회교사제도는 소규모학교가 많은 농어촌지역에 집중되고 있고 교육적 효과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순회교사제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선행연구를 보면 신경옥(2000)은 순회교사 역할이 교과 지식만 전달하는 수업에만 한정되어 있으므로 인성교육 및 교실 장악을 위한 생활지도는 수업의 한 부분인데 순회교사의 역할은 이 점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인식 역시 순회교사의 지도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하였다. 김호영(2000)은 학생들의 순회 교과 과제수행은 비순회 교과보다 낮으며 그 이유는 순회 교과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기본 학습 태도의 차이라고 하였다. 또 순회교사의 지원교 수업에 대한 부담감도 학습구성원의 차이와 시험문제 중복출제, 수행평가 등의 어려움으로 심리적 부담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나.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운영학교 운영 실태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의 핵심 사업인 교육과정지원팀 구성하여 운영하는 중학교는 2016년 26개교, 2017년 39개교, 2018년에는 거의 모든 중학교가 운영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2018b). 이 중 학교 조직을 개편한 두 개의 중학교 교육계획을 통해 업무분장 및 수업시수를 분석하였다.

<표 II-10> A중학교 업무분장표

부서		주요업무	수업시수
교무부	부장교사	교무기획, 교육계획, 학교교육과정, 학교교육평가	9
	교사	일과, 평가	15*
	행정실무	교육 중심학교시스템 업무 지원, 학사, 교과서, 도서구입, 정보공시, 장학, 홍보, 교복, 교구 등	-
연구정보부	연구기획	연구정보기획, 수업연구동아리 학교공개일 날, 교원연수, 교원능력개발평가, 정보교육	12
학생생활안전부	부장교사	학생생활안전기획, 학교폭력, 과학교육	12
	교사	체육업무, 생활지도, 학생회, 수학여행, 환경	9
	보건교사	보건, 성교육, 양성평등교육, 학교안전공제	-
	상담교사	Wee클래스, 위기학생상담, 학업중단	-

문화예술부	부장교사	문화예술교육, 친목회	17*
교육복지부	부장교사	방과후학교, 기초학력, 교육특화	18
진로상담부	부장교사	진로교육, 동아리활동(자유학기), 유네스코, 평생교육, 학부모회	5
	특수교사	특수교육, 제주지역정체성 교육, 인성교육	19

*표시: 순회지원을 나가는 교사

음영: 교육과정지원교사

출처: 2018년 A중학교 교육계획서

A중학교는 9학급으로 부장교사, 비담임교사, 행정실무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특수교사 12명이 교육과정지원팀이며 담임교사는 6명이었다. 교무부장과 학교생활지도 담당 비담임 교사가 수업시수 9시간으로 가장 적었고, 연구부장, 학생부장이 12시간, 교육복지부장과 문화예술부장은 18시간으로 담임교사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담임교사는 15~18시간의 수업 시수를 갖고 있었고, 평균 수업시간은 16시간이었다. 특이점으로는 감축한 수업시수는 순회교사를 지원받고 있었고, 일부 부장교사의 경우 담임교사와 수업시수가 같거나 많았다.

<표 II-11> B중학교 업무분장표

부서		주요업무	수업시수
교무부	부장교사	교무부 업무 총괄	8
	교사	교육평가, 학력 향상, 특수교육, 장학생, 교육실습	12
	교사	일과, 학사, 교과서, 학교공개	12
교육연구부	부장교사	연구부 업무 총괄	10
학생생활안전부	부장교사	학생부 업무 총괄	20
	교사	학교폭력 관련 업무	20
	상담교사	학교부적응 학생 관리 등 상담 업무	-
학생복지방과후부	부장교사	학생복지업무 총괄	20
	교사	방과후학교 업무	20
	보건교사	보건업무	-

인문국제교육부	부장교사	인문 국제교육 업무 총괄	20
	교사	외국어교육	19*
	사서	독서교육, 도서관운영	-
지역사회부	부장교사	지역사회부 업무 총괄	18
	교사	윤리평화	18*
수리과학부	부장교사	수리과학부 업무 총괄	18
	교사	과학행사, 방송기기	18*
	행정보조	과학업무 보조	-
예체능부	부장교사	예체능부 업무 총괄	18
	교사	체육교육	21
	교사	음악교육	20
진로상담부	부장교사	진로상담 업무 총괄	10

*표시: 순회지원을 나가는 교사

음영: 교육과정지원교사

출처: 2018년 B중학교 교육계획서

B 중학교는 30학급의 대형학교로 부장교사 9명, 비담임 9명, 상담교사, 사서 교사, 보건 교사, 행정보조가 교육과정지원팀을 이루고 있었다. 수업시수 감축은 교무부장과 연구부장이 평균 9시간의 수업시수를 갖고 있었고, 담임교사와 비담임 교사는 평균 20시간의 수업시수를 갖고 있었다. 다른 학교로 순회를 나가는 교사는 3명이었다.

두 학교는 모두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져 교육과정지원팀과 교육과정운영팀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다. A 학교는 9학급, B 학교는 30학급으로 보직교사와 비담임 교사의 숫자가 차이가 있다. 또한 교육과정지원팀으로 교무행정업무를 맡게 되는 교사는 A 학교 12명, B 학교 22명으로, 학교의 규모에 따라 공문처리량이나 처리시간 등 교무행정업무의 양이 차이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A 학교의 교육과정지원팀 소속 교사가 업무처리나 수업 준비에 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교사의 본연의 업무인 교육업무보다 교무행정업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은 교실수업 개선 등 수업의 질을 높이는 교육청의 정책과도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소규모학교의 경우 그 피해는

학생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아주 큰 문제이다. 실제로 6학급 이하의 소규모학교의 경우 교과 담당교사가 1명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 학년을 맡게 되는 대규모 학교보다 소규모학교의 교사는 복수 학년을 맡게 되고 수업 준비시간도 많이 필요하게 된다. 학년당 10학급을 갖는 대형학교의 교사는 평균 20시간의 수업시수를 갖고 있다고 가정할 때 일주일에 2차시의 수업 준비를 한다. 학년당 1학급의 소규모학교의 교사는 평균 12시수의 수업시수를 갖는다고 가정할 때 일주일에 12차시의 수업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정책을 대규모 학교와 소규모학교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소규모학교에서는 학교운영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정책에 대한 중학교 교사의 인식을 조사하고자 한다. 특히 대규모 학교와 중·소규모학교 교원들의 인식 차이를 알아보고 앞으로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조사 대상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의 시행 정도와 효과, 개선방안에 대한 중학교 교원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제주지역 소재 중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학교 규모를 고려하여 12학급 이하 8개교, 29학급 이하 5개교, 30학급 이상 2개 학교에서 설문을 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운영계획이 초·중·고등학교에 다르게 적용되고 있고 2018년부터 중학교에서 교육과정지원 교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점을 고려하여 중학교 교원으로 대상을 제한하였다.

2. 조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교원업무경감 관련 선행연구의 설문지를 토대로 본 연구에 맞는 문항을 수정·보완하고 연구자가 재직 중인 학교의 20년차 담임교사, 25년차 담임교사, 30년차 보직교사, 31년차 보직교사 총 4명에게 자문하고 수정·보완하였다. 각종 선행연구를 토대로 총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배경 변인에 관한 문항(8문항), 교원 업무부담에 대한 인식 관련 문항(4문항),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시행정도 관련 문항(4문항),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효과 관련 문항(9문항),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의 개선방안 관련 문항(6문항)으로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Ⅲ-1>과 같다.

<표 Ⅲ-1> 설문지의 영역별 구성 내용

영역	내용	문항 번호	문항 수
배경 변인	성별	1	1
	학교소재지	2	1
	총 학급 수	3	1
	교육경력	4	1

	직위	5	1
	담임 여부	6	1
	소속부서	7	1
	교육중심학교운영학교 지정 여부	8	1
교원업무 부담에 대한 인식	교원행정업무의 양	9	1
	업무영역별 수행비율	10-1~10-5	5
	교무행정업무의 교육 활동 및 연구와의 관련성	11	1
	교무행정업무 처리 및 절차의 어려움	12	1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의 시행정도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의 이해정도	13	1
	교육과정지원교사제 운영현황	14	1
	교육과정지원교사제 구성원	15	1
	주요 추진방안 시행 정도	16-1~16-7	7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의 효과	공문서 처리량 변화	17	1
	교육과정 지원교사제 교무행정업무경감 기여도	18	1
	행복 교육 시작의 달 운영의 도움 정도	19	1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시행의 부정요인	20-1~20-6	6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의 개선방안	교육과정지원팀 필요 부서 중요도	21	1
	교육과정지원팀 필요 부서 시급도	22	1
	교육과정지원팀 구성원	23	1
	교육과정지원팀 운영의 개선방안	24	1
	교육과정지원팀 소속 교사 보상방안	25	1
	교무행정업무처리 간소화 방안	26	1
	합계		41

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설문 조사는 2019년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 동안 온라인 설문 조사를 통해 실시되었다. 조사결과 회수된 응답자가 237명으로 회수율은 55.2%이었으며, 온라인설문 조사 특성상 끝까지 응답에 응하지 않은 설문지와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설문지 115부를 제외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설문지 회수 현황은 <표 III-2>과 같다.

<표 III-2> 설문지 회수 현황

배포(부)	회수(부)	회수율(%)	유효자료수(부)	자료 사용율(%)
350	247	70.5	172	69.6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무성의한 반응을 보인 자료는 통계처리에서 제외했으며, 설문 조사의 응답 내용에 대한 통계처리는 SPSS 18.0을 활용하였으며, 구체적인 실증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배경 변인별 특성, 교원 업무부담에 대한 인식,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시행정도·효과·개선방안에 대한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와 같은 기술통계방법을 사용하였다.

둘째, 교원 업무부담에 대한 인식,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시행정도·효과·개선방안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집단 간 차이 검증인 교차분석을 하였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배경 변인별 차이에 따른 교원 업무부담에 대한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One way ANOVA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 Scheffé 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지에 대한 응답 교원의 배경변인별 구성 및 분포는 <표 III-3>와 같다.

<표 III-3> 응답자의 배경 변인별 구성 및 분포현황

변인	빈도(명)	비율(%)	
성별	남	64	37.2
	여	108	62.8
학교소재지	제주시 동지역	70	40.7
	제주시 읍면지역	62	36.0
	서귀포 동지역	20	11.6
	서귀포 읍면지역	20	11.6
학급수	12학급 이하	86	50.0
	13학급 이상~ 29학급 이하	61	35.5
	30학급 이상	25	14.5
교육경력	5년 미만	23	13.4
	5년 이상~10년 미만	33	19.2

	10년 이상~20년 미만	45	26.2
	20년 이상	71	41.3
직위	부장교사	63	36.6
	교사	109	63.4
담임 여부	담임	90	52.3
	비담임	82	47.7
소속부서	교무	42	24.4
	연구장학	20	11.6
	생활지도	26	15.1
	기타	43	25.0
	소속부서 없음	41	23.8
교육중심학교지정여부	지정	93	54.1
	비지정	79	45.9

<표 III-3>에서와 같이 배경 변인별 구성을 살펴보면 성별에서 여자가 62.8%로 남자 37.5%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소재지는 제주시 동지역이 40.7%, 제주시 읍면지역이 36%, 서귀포시 동지역이 11.6%, 서귀포시 읍면지역이 11.6%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급수는 12학급 이하가 50%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13학급 이상 29학급 이하가 35.5%, 30학급 이상의 대규모 학교는 14.5%로 응답한 교사 중 가장 적었다. 교육경력에 경우에는 20년 이상이 41.3%로 가장 많았고,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가 26.2%로 나타났다.

직위의 경우 부장교사가 36.6%, 교사가 63.4%로 나타났다. 담임 여부의 경우에는 담임이 50.2%로 과반을 조금 넘었고 비담임이 47.7%이었다. 소속부서의 경우에는 기타가 25.9%로 가장 많았다. 이는 학교마다 다른 명칭을 갖고 있는 부서로 ‘교육정보부’, ‘방과후부’, ‘예체능부’, ‘학년부’ 등 조사 도구에 없는 부서와 제주형 자율학교와 교육중심학교시스템 중심학교의 경우 ‘혁신부’가 기타로 응답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타부서에 이어 소속부서 없음이 23.8%로 나타났다. 소속부서 없음으로 응답한 교사는 주로 학년부에 소속된 담임교사에 해당된다 할 수 있다. 이어서 교무부가 24.4%, 생활지도부가 15.1%, 연구부가 11.6%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육중심학교지정여부에서 지정이 54.1%로 비지정의 45.9%로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IV. 연구 결과

1. 교원의 업무부담에 대한 중학교 교사의 인식

중학교 교사들의 교무행정업무 부담 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현재 담당하고 있는 교무행정업무의 양과 업무영역에 대한 수행비율을 알아보고, 교무행정업무의 양에 대한 인식 결과와도 비교하였다. 교무행정업무와 교육 활동과의 관련성에 대한 중학교 교사의 인식과 행정업무처리의 어려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중학교 교사의 업무부담을 분석하였다.

가. 교무행정업무의 양에 대한 인식

<표 IV-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인식하는 교무행정업무의 양에 대한 전체의견을 보면 ‘매우 많다.’, ‘많다’라는 응답이 51.2%로 ‘매우 적다.’, ‘적다’라는 9.9%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위에 따라서는 부장교사가 교사에 비교하여 교무행정업무의 양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었다($t=2.948, p=0.04$). 또한 비담임교사가 담임교사보다 교무행정업무의 양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t=-2.026, p=.044$), 교육중심학교에 지정되지 않은 학교가 지정된 학교보다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t=-2.313, p=.022$).

<표 IV-1> 교무행정업무의 양에 대한 배경 변인 별 인식 차이

구분		매우 적다	적다	적당하다	많다	매우 많다	전체	평균	표준편차	차이 검증
성별	남	2 (3.1)	4 (6.3)	26 (40.6)	19 (29.7)	13 (20.3)	64 (100.0)	3.58	.988	.026
	여	3 (2.8)	8 (7.4)	41 (38.0)	36 (33.3)	20 (18.5)	108 (100.0)	3.57	.968	
학교소재지	제주시 동지역	2 (2.9)	6 (8.6)	30 (42.9)	19 (27.1)	13 (18.6)	70 (100.0)	3.50	.989	.818
	제주시 읍면지역	3 (4.8)	4 (6.5)	23 (37.1)	21 (33.9)	11 (17.7)	62 (100.0)	3.53	1.019	
	서귀포 동지역	0 (.0)	1 (5.0)	5 (25.0)	10 (50.0)	4 (20.0)	20 (100.0)	3.85	.812	
	서귀포 읍면지역	0 (.0)	1 (5.0)	9 (45.0)	5 (25.0)	5 (25.0)	20 (100.0)	3.70	.923	
학급수	12학급 이하	4 (4.7)	4 (4.7)	33 (38.4)	27 (31.4)	18 (20.9)	86 (100.0)	3.59	1.025	.756
	13학급 이상 ~29학급 이하	0 (.0)	5 (8.2)	23 (37.7)	22 (36.1)	11 (18.0)	61 (100.0)	3.63	.876	
	30학급 이상	1 (4.0)	3 (12.0)	11 (44.0)	6 (24.0)	4 (16.0)	25 (100.0)	3.36	1.032	

교육 경력	5년 미만	0 (.0)	1 (4.3)	10 (43.5)	9 (39.1)	3 (13.0)	23 (100.0)	3.60	.782	.471
	5년 이상 ~10년 미만	1 (3.0)	5 (15.2)	11 (33.3)	12 (36.4)	4 (12.1)	33 (100.0)	3.39	.998	
	10년 이상 ~20년 미만	2 (4.4)	4 (8.9)	16 (35.6)	10 (22.2)	13 (28.9)	45 (100.0)	3.62	1.136	
	20년 이상	2 (2.8)	2 (2.8)	30 (42.3)	24 (33.8)	13 (18.3)	71 (100.0)	3.61	.915	
직위	부장교사	1 (1.6)	1 (1.6)	19 (30.2)	27 (42.9)	15 (23.8)	63 (100.0)	3.85	.858	2.948 **
	교사	4 (3.7)	11 (10.1)	48 (44.0)	28 (25.7)	18 (16.5)	109 (100.0)	3.41	1.001	
담임 여부	담임	4 (4.4)	10 (11.1)	35 (38.9)	25 (27.8)	16 (17.8)	90 (100.0)	3.43	1.049	-2.026 *
	비담임	1 (1.2)	2 (2.4)	32 (39.0)	30 (36.6)	17 (20.7)	82 (100.0)	3.73	.861	
소속 부서	교무	1 (2.4)	2 (4.8)	17 (40.5)	17 (40.5)	5 (11.9)	42 (100.0)	3.54	.861	1.447
	연구장학	0 (.0)	1 (5.0)	9 (45.0)	5 (25.0)	5 (25.0)	20 (100.0)	3.70	.923	
	생활지도	0 (.0)	1 (3.8)	11 (42.3)	6 (23.1)	8 (30.8)	26 (100.0)	3.80	.938	
	기타부서	3 (7.0)	4 (9.3)	17 (39.5)	15 (34.9)	4 (9.3)	43 (100.0)	3.30	1.016	
	소속부서없음	1 (2.4)	4 (9.8)	13 (31.7)	12 (29.3)	11 (26.8)	41 (100.0)	3.68	1.052	
교육 중심 학교 지정	지정	4 (4.3)	9 (9.7)	40 (43.0)	24 (25.8)	16 (17.2)	93 (100.0)	3.41	1.024	-2.313 *
	비지정	1 (1.3)	3 (3.8)	27 (34.2)	31 (39.2)	17 (21.5)	79 (100.0)	3.75	.880	
전체		5 (2.9)	12 (7.0)	67 (39.0)	55 (32.0)	33 (19.2)	172 (100.0)	3.57	.973	

*p<0.05 **p<.01

나. 업무영역별 수행비율에 대한 인식

<표 IV-2>에서와 같이 총 업무의 양의 기준을 100%로 했을 때 각 영역에 소요되는 비율에 대해 살펴본 결과 수업에 대한 업무 수행은 30.51%로 가장 높았고, 교무행정업무 처리는 25.69%, 생활지도가 20.84%로 나타났다. 또한, 수업 및 생활지도를 제외한 교육 활동은 12.95%를 차지하고 있었다. 교사가 수행하는 교육 활동(수업, 생활지도, 그 외 교육 활동)은 64.3%이고 교육 활동이 아닌 업무는 35.7%로 나타났다. 특히 교무행정업무 처리의 비율은 총 업무의 1/4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업 활동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이는 앞에서 분석한 교무행정업무양이 많다는 의견과 대응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수업은 최소값 1, 최대값 80, 표준편차 16.096으로 나타났고, 교무행정업무 처리는 최소값 0, 최대값 95, 표준편차 18.258로 분석되었다.

<표 IV-2> 업무영역별 수행비율

업무 영역	평균	표준편차
수업(교재연구 포함)	30.51	16.096
생활지도	20.84	12.28
수업 및 생활지도를 제외한 교육 활동(상담, 방과후 지도)	12.95	7.823
교무행정업무처리	25.69	18.258
기타(연수, 회의 등)	9.18	5.251

다. 교무행정업무와 교육 활동 및 연구와의 관련성

<표 IV-3>에서와 같이 교무행정업무가 교육 활동 및 연구와의 관련된 정도는 ‘매우 적다’, ‘적다’라는 의견은 48.8%이며 ‘많다’, ‘매우 많다’라는 28.5%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모든 배경변인별 인식의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IV-3> 배경 변인 별 교육 활동 및 연구와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 차이

구분		매우 적다	적다	적당하다	많다	매우 많다	전체	평균	표준편차	차이 검증
성별	남	12 (18.8)	18 (28.1)	15 (23.4)	15 (23.4)	4 (6.3)	64 (100.0)	2.70	1.204	-.383
	여	15 (13.9)	39 (36.1)	24 (22.2)	15 (13.9)	15 (13.9)	108 (100.0)	2.77	1.255	
학교소재지	제주시 동지역	16 (22.9)	19 (27.1)	11 (15.7)	15 (21.4)	9 (12.9)	70 (100.0)	2.74	1.369	.279
	제주시 읍면지역	7 (11.3)	25 (40.3)	12 (19.4)	11 (17.7)	7 (11.3)	62 (100.0)	2.77	1.206	
	서귀포 동지역	2 (10.0)	7 (35.0)	9 (45.0)	2 (10.0)	0 (.0)	20 (100.0)	2.55	.825	
	서귀포 읍면지역	2 (10.0)	6 (30.0)	7 (35.0)	2 (10.0)	3 (15.0)	20 (100.0)	2.90	1.209	
학급수	12학급 이하	11 (12.8)	32 (37.2)	22 (25.6)	12 (14.0)	9 (10.5)	86 (100.0)	2.72	1.174	.275
	13학급 이상 ~29학급 이하	11 (18.0)	18 (29.5)	16 (26.2)	9 (14.8)	7 (11.5)	61 (100.0)	2.72	1.253	
	30학급 이상	5 (20.0)	7 (28.0)	1 (4.0)	9 (36.0)	3 (12.0)	25 (100.0)	2.92	1.411	
교육경력	5년 미만	5 (21.7)	6 (26.1)	6 (26.1)	5 (21.7)	1 (4.3)	23 (100.0)	2.60	1.196	.968
	5년 이상 ~10년 미만	2 (6.1)	12 (36.4)	10 (30.3)	2 (6.1)	7 (21.2)	33 (100.0)	3.00	1.250	

직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 (22.2)	16 (35.6)	8 (17.8)	6 (13.3)	5 (11.1)	45 (100.0)	2.55	1.289	1.202
	20년 이상	10 (14.1)	23 (32.4)	15 (21.1)	17 (23.9)	6 (8.5)	71 (100.0)	2.80	1.202	
	부장교사	14 (22.2)	11 (17.5)	12 (19.0)	19 (30.2)	7 (11.1)	63 (100.0)	2.90	1.352	
	교사	13 (11.9)	46 (42.2)	27 (24.8)	11 (10.1)	12 (11.0)	109 (100.0)	2.66	1.156	
담임 여부	담임	13 (14.4)	35 (38.9)	23 (25.6)	9 (10.0)	10 (11.1)	90 (100.0)	2.64	1.183	-1.177
	비담임	14 (17.1)	22 (26.8)	16 (19.5)	21 (25.6)	9 (11.0)	82 (100.0)	2.86	1.283	
소속 부서	교무	5 (11.9)	13 (31.0)	8 (19.0)	10 (23.8)	6 (14.3)	42 (100.0)	2.97	1.278	.500
	연구장학	2 (10.0)	10 (50.0)	3 (15.0)	3 (15.0)	2 (10.0)	20 (100.0)	2.65	1.182	
	생활지도	5 (19.2)	7 (26.9)	9 (34.6)	3 (11.5)	2 (7.7)	26 (100.0)	2.61	1.168	
	기타부서	6 (14.0)	17 (39.5)	10 (23.3)	5 (11.6)	5 (11.6)	43 (100.0)	2.67	1.209	
	소속부서 없음	9 (22.0)	10 (24.4)	9 (22.0)	9 (22.0)	4 (9.8)	41 (100.0)	2.73	1.304	
교육 중심 학교 지정	지정	16 (17.2)	26 (28.0)	20 (21.5)	18 (19.4)	13 (14.0)	93 (100.0)	2.84	1.310	1.148
	비지정	11 (13.9)	31 (39.2)	19 (24.1)	12 (15.2)	6 (7.6)	79 (100.0)	2.63	1.134	
전체		27 (15.7)	57 (33.1)	39 (22.7)	30 (17.4)	19 (11.0)	172 (100.0)	2.75	1.233	

라. 교무행정업무 처리 및 방법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 차이

<표 IV-4>와 같이 교무행정업무의 처리 및 방법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에 대해 살펴보면 전체의 50%가 '매우 많다.' 또는 '많다'라고 응답했고 33.1%는 '거의 없다.' 또는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배경변인별 인식 차이를 분석해본 결과 여교사가 남교사에 비해 교무행정업무를 처리 및 방법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 배경 변인별 교무행정업무 처리 및 방법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

구분	매우 적다	적다	적당하다	많다	매우 많다	전체	평균	표준 편차	차이 검증	
성별	남	8 (12.5)	19 (29.7)	13 (20.3)	18 (28.1)	6 (9.4)	64 (100.0)	2.92	1.212	-2.751 **
	여	7 (6.5)	23 (21.3)	16 (14.8)	38 (35.2)	24 (22.2)	108 (100.0)	3.45	1.233	
학교 소재지	제주시 동지역	7 (6.5)	23 (21.3)	16 (14.8)	38 (35.2)	24 (22.2)	108 (100.0)	3.28	1.241	.452
	제주시 읍면지역	7 (6.5)	23 (21.3)	16 (14.8)	38 (35.2)	24 (22.2)	108 (100.0)	3.24	1.289	

	서귀포 동지역	7 (6.5)	23 (21.3)	16 (14.8)	38 (35.2)	24 (22.2)	108 (100.0)	3.45	1.050	
	서귀포 읍면지역	7 (6.5)	23 (21.3)	16 (14.8)	38 (35.2)	24 (22.2)	108 (100.0)	3.00	1.376	
학급 수	12학급 이하	7 (8.1)	22 (25.6)	14 (16.3)	26 (30.2)	17 (19.8)	86 (100.0)	3.27	1.270	.446
	13학급 이상 ~29학급 이하	4 (6.6)	14 (23.0)	12 (19.7)	21 (34.4)	10 (16.4)	61 (100.0)	3.31	1.190	
	30학급 이상	4 (16.0)	6 (24.0)	3 (12.0)	9 (36.0)	3 (12.0)	25 (100.0)	3.04	1.337	
교육 경력	5년 미만	0 (.0)	7 (30.4)	4 (17.4)	6 (26.1)	6 (26.1)	23 (100.0)	3.47	1.201	.994
	5년 이상 ~10년 미만	0 (.0)	10 (30.3)	5 (15.2)	12 (36.4)	6 (18.2)	33 (100.0)	3.42	1.118	
	10년 이상 ~20년 미만	5 (11.1)	8 (17.8)	6 (13.3)	20 (44.4)	6 (13.3)	45 (100.0)	3.31	1.239	
	20년 이상	10 (14.1)	17 (23.9)	14 (19.7)	18 (25.4)	12 (16.9)	71 (100.0)	3.07	1.323	
직위	부장교사	8 (12.7)	12 (19.0)	8 (12.7)	22 (34.9)	13 (20.6)	63 (100.0)	3.31	1.341	.491
	교사	7 (6.4)	30 (27.5)	21 (19.3)	34 (31.2)	17 (15.6)	109 (100.0)	3.22	1.196	
담임 여부	담임	6 (6.7)	22 (24.4)	18 (20.0)	27 (30.0)	17 (18.9)	90 (100.0)	3.30	1.221	.485
	비담임	9 (11.0)	20 (24.4)	11 (13.4)	29 (35.4)	13 (15.9)	82 (100.0)	3.20	1.283	
소속 부서	교무	6 (14.3)	7 (16.7)	7 (16.7)	17 (40.5)	5 (11.9)	42 (100.0)	3.19	1.273	.091
	연구장학	1 (5.0)	6 (30.0)	4 (20.0)	6 (30.0)	3 (15.0)	20 (100.0)	3.20	1.196	
	생활지도	2 (7.7)	6 (23.1)	7 (26.9)	6 (23.1)	5 (19.2)	26 (100.0)	3.23	1.242	
	기타부서	4 (9.3)	12 (27.9)	5 (11.6)	12 (27.9)	10 (23.3)	43 (100.0)	3.27	1.350	
	소속부서 없음	2 (4.9)	11 (26.8)	6 (14.6)	15 (36.6)	7 (17.1)	41 (100.0)	3.34	1.196	
교육 중심 학교 지정	지정	8 (8.6)	24 (25.8)	18 (19.4)	29 (31.2)	14 (15.1)	93 (100.0)	3.18	1.224	-.831
	비지정	7 (8.9)	18 (22.8)	11 (13.9)	27 (34.2)	16 (20.3)	79 (100.0)	3.34	1.279	
전체		15 (8.7)	42 (24.4)	29 (16.9)	56 (32.6)	30 (17.4)	172 (100.0)	3.25	1.248	

**p<0.01

2.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의 시행정도에 대한 중학교 교사의 인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의 주요 추진 정책들이 학교현장에서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추진 계획에 대한 이해 정도, 세부 추진 정책의 시행 정도에 대한 중학교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가.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에 대한 이해정도

<표 IV-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추진계획을 이해하고 있는 정도에 대해 살펴보면 ‘알고 있음’, ‘매우 잘 알고 있음’의 긍정적 응답은 66.9%로 ‘모름’, ‘전혀 모름’의 부정적 의견인 15.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교육경력에 따른 이해정도에서 ‘알고 있음’, ‘매우 잘 알고 있음’의 긍정적 의견을 비교해보면 5년 미만의 교사는 43.5%이며,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교사는 51.6%로 나타났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교사의 긍정적 의견은 80%이었으며 20년 이상의 교사는 73.2%로 저경력 교사보다 고경력 교사가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의 정책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높았다($F=7.410, p=0.000$).

직위에 따른 이해정도를 살펴보면 부장교사는 ‘알고 있음’, ‘매우 잘 알고 있음’의 긍정적 응답은 82.5%로 ‘모름’, ‘전혀 모름’의 부정적 의견인 6.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교사는 ‘알고 있음’, ‘매우 잘 알고 있음’의 긍정적 응답은 87.8%로 ‘모름’, ‘전혀 모름’의 부정적 의견인 21.1%로 나타났다($t=4.607, p=.000$).

담임 여부에 따른 이해정도를 살펴보면 담임교사는 ‘알고 있음’, ‘매우 잘 알고 있음’의 긍정적 응답은 55.6%로 ‘모름’, ‘전혀 모름’의 부정적 의견인 21.1%로 나타났다. 반면 비담임 교사는 ‘알고 있음’, ‘매우 잘 알고 있음’의 긍정적 응답은 79.3%로 ‘모름’, ‘전혀 모름’의 부정적 의견인 9.8%로 나타났다($t=-3.354, p=.001$).

교육중심학교 지정 여부에 따라서는 교육중심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소속된 교사는 ‘알고 있음’, ‘매우 잘 알고 있음’의 긍정적 응답은 73.1%이었으며 비지정된 학교는 ‘알고 있음’, ‘매우 잘 알고 있음’의 긍정적 응답이 59.5%로 교육중심학교보다 낮게 나타났다($t=3.047, p=.003$).

<표 IV-5>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에 대한 이해에 대한 배경 변위별 인식 차이

구분	전혀 모름	모름	보통	알고 있음	매우 잘 알고 있음	전체	평균	표준 편차	차이 검증	
성별	남	1 (1.6)	9 (14.1)	9 (14.1)	35 (54.7)	10 (15.6)	64 (100.0)	3.68	.957	.077
	여	0 (.0)	17 (15.7)	21 (19.4)	50 (46.3)	20 (18.5)	108 (100.0)	3.67	.955	
학교 소재 지	제주시 동지역	1 (1.4)	12 (17.1)	15 (21.4)	33 (47.1)	9 (12.9)	70 (100.0)	3.52	.973	1.025
	제주시 읍면지역	0 (.0)	8 (12.9)	8 (12.9)	34 (54.8)	12 (19.4)	62 (100.0)	3.80	.902	
	서귀포 동지역	0 (.0)	2 (10.0)	3 (15.0)	13 (65.0)	2 (10.0)	20 (100.0)	3.75	.786	
	서귀포 읍면지역	0 (.0)	4 (20.0)	4 (20.0)	5 (25.0)	7 (35.0)	20 (100.0)	3.75	1.164	
학년 수	12학년 이하	1 (1.2)	13 (15.1)	14 (16.3)	40 (46.5)	18 (20.9)	86 (100.0)	3.70	1.004	.507
	13학년 이상 ~29학년 이하	0 (.0)	11 (18.0)	10 (16.4)	33 (54.1)	7 (11.5)	61 (100.0)	3.59	.919	
	30학년 이상	0 (.0)	2 (8.0)	6 (24.0)	12 (48.0)	5 (20.0)	25 (100.0)	3.80	.866	
교육 경력	5년 미만(a)	0 (.0)	9 (39.1)	4 (17.4)	10 (43.5)	0 (.0)	23 (100.0)	3.04	.928	7.410 *** a<c,d
	5년 이상 ~10년 미만(b)	0 (.0)	7 (21.2)	9 (27.3)	15 (45.5)	2 (6.1)	33 (100.0)	3.36	.895	
	10년 이상 ~20년 미만(c)	1 (2.2)	2 (4.4)	6 (13.3)	26 (57.8)	10 (22.2)	45 (100.0)	3.93	.863	
	20년 이상(d)	0 (.0)	8 (11.3)	11 (15.5)	34 (47.9)	18 (25.4)	71 (100.0)	3.87	.924	
직위	부장교사	1 (1.6)	3 (4.8)	7 (11.1)	30 (47.6)	22 (34.9)	63 (100.0)	4.09	.892	4.607 ***
	교사	0 (.0)	23 (21.1)	23 (21.1)	55 (50.5)	8 (7.3)	109 (100.0)	3.44	.907	
담임 여부	담임	1 (1.1)	18 (20.0)	21 (23.3)	39 (43.3)	11 (12.2)	90 (100.0)	3.45	.984	-3.354 ***
	비담임	0 (.0)	8 (9.8)	9 (11.0)	46 (56.1)	19 (23.2)	82 (100.0)	3.92	.857	
소속 부서	교무	0 (.0)	10 (23.8)	5 (11.9)	18 (42.9)	9 (21.4)	42 (100.0)	3.61	1.080	.222
	연구장학	0 (.0)	1 (5.0)	7 (35.0)	7 (35.0)	5 (25.0)	20 (100.0)	3.80	.894	
	생활지도	0 (.0)	3 (11.5)	7 (26.9)	14 (53.8)	2 (7.7)	26 (100.0)	3.57	.808	
	기타	1 (2.3)	6 (14.0)	6 (14.0)	21 (48.8)	9 (20.9)	43 (100.0)	3.72	1.031	
	소속부서 없음	0 (.0)	6 (14.6)	5 (12.2)	25 (61.0)	5 (12.2)	41 (100.0)	3.70	.873	
교육 중심 학교 지정	지정	0 (.0)	8 (8.6)	17 (18.3)	46 (49.5)	22 (23.7)	93 (100.0)	3.88	.870	3.047 **
	비지정	1 (1.3)	18 (22.8)	13 (16.5)	39 (49.4)	8 (10.1)	79 (100.0)	3.44	.996	
전체	1 (.6)	26 (15.1)	30 (17.4)	85 (49.4)	30 (17.4)	172 (100.0)	3.68	.953		

***p<.001, **p<0.01

나. 교육과정지원교사제 운영 여부에 대한 인식

<표 IV-6>에서와 같이 중학교 교사들이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교육과정지원교사제의 운영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이 87명(50.6%),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85명(49.4%)으로 조사되었다.

<표 IV-6> 교육과정지원교사제 운영 여부

	빈도	퍼센트(%)
운영됨	87	50.6
운영되지 않음	85	49.4

다. 교육과정지원교사의 소속 교원과 인력에 대한 인식

<표 IV-7>에서와 같이 교육과정지원교사제를 운영하는 학교에서 교육과정지원팀에 소속되어 있는 교원과 인력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교육과정지원교사제를 실시하는 87개 학교 중 ‘교감’, ‘부장교사’, ‘비담임 교사’, ‘행정실무원’이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장교사’와 ‘비담임 교사’가 교육과정지원교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IV-7> 교육과정지원팀의 소속 교원에 대한 인식

구성원	빈도	퍼센트
교감	43	25
부장교사	86	50
비담임교사	80	46.5
담임교사	19	11
행정실무원	51	29.7
기타보조인력	8	4.7

* 교육과정지원팀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만 응답, 복수 응답

라.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의 주요 추진방안의 시행정도에 대한 인식

<표 IV-8>과 같이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의 주요 추진방안의 시행 정도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살펴보면 학년 중심, 교과 중심 학교 조직 재구조화에 대한 시행정도에서 긍정 응답은 41.9%, 부정응답은 28.5%로 나타났다.

<표 IV-8> 주요 추진방안 시행정도에 대한 인식

주요 추진방안	시행정도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7-1 학년 중심, 교과 중심 학교 조직 재구조화 - 담임이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구축	15 (8.7)	34 (19.8)	51 (29.7)	51 (29.7)	21 (12.2)	3.17
7-2 교육과정지원팀 구성 및 운영	8 (4.7)	31 (18)	51 (29.7)	58 (32.6)	26 (15.1)	3.35
7-3 공문서 처리방법 간소화 및 외부공문 처리 간소화	15 (8.7)	44 (25.6)	61 (35.5)	40 (23.3)	12 (7)	2.94
7-4 소통과 협력의 학교 문화 조성	11 (6.4)	28 (16.3)	65 (37.8)	47 (27.3)	21 (12.2)	3.23
7-5 행복교육 시작의 달 운영	19 (11)	26 (15.1)	71 (41.3)	35 (20.3)	21 (12.2)	3.08
7-6 학교 연수의 날 운영	3 (1.7)	8 (4.7)	39 (22.7)	72 (41.9)	50 (29.1)	3.92
7-7 교육청의 교육정책사업의 통합·축소	17 (9.9)	37 (21.5)	77 (44.8)	30 (17.4)	11 (6.4)	2.89

배경변인별 차이는 <표 IV-9>와 같이 직위와 담임여부, 교육중심학교지정 여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부장교사는 교사에 비해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다. 비담임 교사가 담임교사보다 학년 중심, 교과중심 학교 조직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중심학교에 지정된 학교의 교사가 비지정된 학교의 교사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V-9> 학년 중심, 교과 중심 학교 조직 재구조화 시행정도

배경 변인		N	평균	차이 검증
직위	부장교사	63	3.41	2.054 *
	교사	109	3.03	
담임 여부	담임	90	2.91	-3.171 **
	비담임	82	3.45	
교육중심학 교지정여부	지정	93	3.62	6.255 ***
	비지정	79	2.63	

*p<.05, **p<.01, ***<.001

교육과정지원팀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시행 정도에 대한 인식은 긍정 응답 47.7%, 부정 응답 22.7%로 나타났다. 배경 변인별 차이는 <표 IV-10>와 같이 성별, 직위, 담임여부, 교육중심학교 지정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교육중심학교 지정 여부에서 큰 인식 차이가 있었는데 교육중심학교에 지정된 교사가 비지정된 교사보다 교육과정지원팀 구성 및 운영의 시행 정도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IV-10> 교육과정지원팀 구성 및 운영 시행정도

배경 변인		N	평균	차이 검증
성별	남자	64	3.05	-2.93 **
	여자	108	3.53	
직위	부장교사	63	3.68	3.087 **
	교사	109	3.17	
담임 여부	담임	90	3.14	-2.710 **
	비담임	82	3.59	
교육중심학 교지정여부	지정	93	3.84	7.239 ***
	비지정	79	2.78	

p<.01, *<.001

공문서 처리방법 간소화 및 외부공문 처리 간소화에 대한 인식은 긍정 응답 30.3%, 부

정응답 34.3%로 나타났다. 배경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표 IV-11>와 같다. 성별, 직위, 교육중심학교지정 여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여교사가 남교사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중심학교에 지정된 학교에 교사가 비지정된 학교의 교사보다 공문서 처리방법 간소화 및 외부공문 처리 간소화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표 IV-11> 공문서 처리방법 간소화 및 외부공문 처리 간소화 시행정도

배경 변인		N	평균	차이 검증
성별	남자	64	2.66	-2.78 **
	여자	108	3.11	
직위	부장교사	63	3.16	2.063 *
	교사	109	2.82	
교육중심학 교지정여부	지정	93	3.29	5.005 ***
	비지정	79	2.53	

*p<.05, **p<0.01, ***<.001

소통과 협력의 학교문화 조성에 대한 시행 정도는 긍정 응답 39.5%, 부정응답 22.7%로 나타났다. 배경 변인별 차이는 <표 IV-12>와 같이 나타났는데, 직위, 담임 여부, 교육중심학교지정여부에 따라 나타났다. 부장교사는 교사보다 소통과 협력의 학교문화 조성의 시행이 잘되고 있다고 나타났고 비담임 교사가 담임교사보다 긍정적 응답 비율을 높였다. 교육중심학교에 지정된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비지정된 학교의 교사보다 소통과 협력의 학교문화 조성에 대한 시행 정도에 긍정적인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2> 소통과 협력의 학교문화 조성 시행정도

배경 변인		N	평균	차이 검증
직위	부장교사	63	3.44	2.056 *
	교사	109	3.1	
담임 여부	담임	90	3.03	-2.514 *
	비담임	82	3.44	
교육중심학교지정 여부	지정	93	3.44	2.967 **
	비지정	79	2.97	

*p<.05, **p<0.01

행복교육 시작의 달 운영에 대한 시행 정도를 보면 긍정 응답 32.5%, 부정응답 26.1%로 나타났다. 배경 변인별 차이는 <표 IV-13>와 같이 직위와 교육중심학교 지정여부에서 나타났다. 부장교사가 교사보다, 교육중심학교에 지정된 학교의 교사가 비지정된 학교의 교사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V-13> 행복 교육 시작의 달 시행정도

배경 변인		N	평균	차이 검증
직위	부장교사	63	3.38	2.735 **
	교사	109	2.9	
교육중심학교지정 여부	지정	93	3.3	2.889 **
	비지정	79	2.81	

**p<0.01, *p<.05

학교연수의 달 운영의 시행정도는 긍정 응답 71.9%, 부정 응답 6.4%로 교육중심 학교 시스템의 주요 정책 중 가장 시행 정도가 높다고 나타났다. 배경변인별로는 교육중심학교 지정여부에서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표 IV-14>와 같이 나타났다. 교육중심학교에 지정된 학교에서 긍정적인 응답율을 높였다.

<표 IV-14> 학교연수의 달 시행정도

배경 변인		N	평균	차이 검증
교육중심학교지정 여부	지정	93	4.09	2.614 **
	비지정	79	3.72	

**p<0.01

교육청의 교육정책사업 통합·축소의 시행 정도를 살펴보면 긍정 응답이 23.8%이었으며 부정응답은 31.4%로 나타났다. 배경 변인별 차이는 <표 IV-15>와 같이 분석되었다. 부장교사가 교사에 비해 시행 정도가 높다고 답했고, 교육중심학교에 지정된 학교의 교사가 비지정된 학교의 교사보다 시행 정도가 높다고 응답하였다.

<표 IV-15> 교육청의 교육정책사업 통합·축소 시행정도

배경 변인		N	평균	차이 검증
직위	부장교사	63	3.1	2.035 *
	교사	109	2.48	
교육중심학교지정 여부	지정	93	3.16	3.962 ***
	비지정	79	2.57	

*p<.05, ***<.001

3.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의 효과에 대한 중학교 교사의 인식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의 주요 추진 정책이 교원업무 경감에 어느 정도 효과를 주고 있으며 중학교 교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업무 경감을 체감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공문서 처리량의 변화, 교육과정지원교사제의 효과, 행복 교육 시작의 달 운영의 효과,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의 방해요인에 대한 중학교 교사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가. 공문서 처리량 변화에 대한 인식

<표 IV-16>와 같이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추진 이후 공문서 처리량의 변화를 보면 ‘매우 감소’, ‘감소’의 긍정적 의견이 39%로 ‘증가’, ‘매우 증가’의 부정적 응답(12.2%)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별과 직위 그리고 교육중심학교 여부에서 인식 차이가 있었는데, 남자 교사가 여자 교사에 비해 부정응답이 높게 나타났다($t=2.524, p=.012$). 부장교사는 일반교사에 비해 공문서 처리량이 증가했다는 부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t=2.059, p=.041$). 교육중심학교에서는 ‘매우 감소’와 ‘감소’의 의견이 51.6%이고, 교육중심학교 비지정학교는 24.1%로 나타났다. 교육중심학교에 지정된 학교에 교사가 비지정된 학교의 교사보다 공문서 처리량 감소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2.573, p=.011$).

<표 IV-16> 공문서 처리량 변화 차이

구분		매우 감소	감소	변화 없음	증가	매우 증가	전체	평균	표준 편차	차이 검증
성별	남	2 (3.1)	14 (21.9)	38 (59.4)	8 (12.5)	2 (3.1)	64 (100.0)	2.90	.770	2.524 *
	여	6 (5.6)	45 (41.7)	46 (42.6)	9 (8.3)	2 (1.9)	108 (100.0)	2.59	.797	
학교 소재지	제주시 동지역	4 (5.7)	21 (30.0)	36 (51.4)	7 (10.0)	2 (2.9)	70 (100.0)	2.74	.828	.738
	제주시 읍면지역	3 (4.8)	26 (41.9)	28 (45.2)	3 (4.8)	2 (3.2)	62 (100.0)	2.59	.798	
	서귀포 동지역	0 (.0)	7 (35.0)	9 (45.0)	4 (20.0)	0 (.0)	20 (100.0)	2.85	.745	
	서귀포 읍면지역	1 (5.0)	5 (25.0)	11 (55.0)	3 (15.0)	0 (.0)	20 (100.0)	2.80	.767	
학급 수	12학급 이하	4 (4.7)	32 (37.2)	42 (48.8)	5 (5.8)	3 (3.5)	86 (100.0)	2.66	.806	.446
	13학급 이상 ~29학급 이하	3 (4.9)	20 (32.8)	26 (42.6)	11 (18.0)	1 (1.6)	61 (100.0)	2.78	.858	
	30학급 이상	1 (4.0)	7 (28.0)	16 (64.0)	1 (4.0)	0 (.0)	25 (100.0)	2.68	.627	
교육 경력	5년 미만(a)	1 (4.3)	6 (26.1)	14 (60.9)	1 (4.3)	1 (4.3)	23 (100.0)	2.78	.795	.095
	5년 이상 ~10년 미만(b)	3 (9.1)	10 (30.3)	15 (45.5)	5 (15.2)	0 (.0)	33 (100.0)	2.66	.853	
	10년 이상 ~20년 미만(c)	2 (4.4)	17 (37.8)	20 (44.4)	4 (8.9)	2 (4.4)	45 (100.0)	2.71	.869	
	20년 이상(d)	2 (2.8)	26 (36.6)	35 (49.3)	7 (9.9)	1 (1.4)	71 (100.0)	2.70	.744	
직위	부장교사	2 (3.2)	19 (30.2)	30 (47.6)	9 (14.3)	3 (4.8)	63 (100.0)	2.87	.870	2.059 *
	교사	6 (5.5)	40 (36.7)	54 (49.5)	8 (7.3)	1 (.9)	109 (100.0)	2.61	.744	
담임 여부	담임	6 (6.7)	31 (34.4)	46 (51.1)	6 (6.7)	1 (1.1)	90 (100.0)	2.61	.759	-1.695
	비담임	2 (2.4)	28 (34.1)	38 (46.3)	11 (13.4)	3 (3.7)	82 (100.0)	2.81	.833	
소속 부서	교무	0 (.0)	16 (38.1)	23 (54.8)	3 (7.1)	0 (.0)	42 (100.0)	2.69	.604	.649
	연구장학	0 (.0)	7 (35.0)	12 (60.0)	1 (5.0)	0 (.0)	20 (100.0)	2.70	.571	
	생활지도	0 (.0)	8 (30.8)	12 (46.2)	6 (23.1)	0 (.0)	26 (100.0)	2.92	.744	
	기타	5 (11.6)	15 (34.9)	17 (39.5)	4 (9.3)	2 (4.7)	43 (100.0)	2.60	.979	
	소속부서 없음	3 (7.3)	13 (31.7)	20 (48.8)	3 (7.3)	2 (4.9)	41 (100.0)	2.70	.901	
교육 중심 학교 지정	지정	7 (7.5)	41 (44.1)	32 (34.4)	11 (11.8)	2 (2.2)	93 (100.0)	2.56	.877	-2.573 *
	비지정	1 (1.3)	18 (22.8)	52 (65.8)	6 (7.6)	2 (2.5)	79 (100.0)	2.87	.667	
전체		8 (4.7)	59 (34.3)	84 (48.8)	17 (9.9)	4 (2.3)	172 (100.0)	2.70	.800	

*p<.05

나. 교육과정지원교사제의 교무행정업무경감 기여에 대한 인식

<표 IV-17>과 같이 교육과정지원교사제가 교무행정업무경감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해 살펴보면 ‘매우 높음’, ‘높음’의 긍정적인 응답은 43.6%로 ‘매우 낮음’, ‘낮음’의 23.3%보다 높게 나타났다. 배경 변인에 대한 평균비교를 했지만 교육과정지원교사제가 교무행정업무 경감에 기여한다는 유의미한 결과는 없었다.

<표 IV-17> 교원행정업무 경감 효과

구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전체	평균	표준 편차	차이 검증
성별	남	4 (6.3)	15 (23.4)	21 (32.8)	18 (28.1)	6 (9.4)	64 (100.0)	3.10	1.070	-1.404
	여	6 (5.6)	15 (13.9)	36 (33.3)	38 (35.2)	13 (12.0)	108 (100.0)	3.34	1.042	
학교 소재지	제주시 동지역	5 (5.8)	18 (20.9)	28 (32.6)	24 (27.9)	11 (12.8)	86 (100.0)	3.25	1.072	.103
	제주시 읍면지역	4 (6.6)	9 (14.8)	20 (32.8)	20 (32.8)	8 (13.1)	61 (100.0)	3.20	1.088	
	서귀포 동지역	1 (4.0)	3 (12.0)	9 (36.0)	12 (48.0)	0 (.0)	25 (100.0)	3.30	.864	
	서귀포 읍면지역	0 (.0)	6 (30.0)	5 (25.0)	5 (25.0)	4 (20.0)	20 (100.0)	3.35	1.136	
학급 수	12학급 이하	5 (5.8)	18 (20.9)	28 (32.6)	24 (27.9)	11 (12.8)	86 (100.0)	3.20	1.096	.173
	13학급 이상 ~29학급 이하	4 (6.6)	9 (14.8)	20 (32.8)	20 (32.8)	8 (13.1)	61 (100.0)	3.31	1.088	
	30학급 이상	1 (4.0)	3 (12.0)	9 (36.0)	12 (48.0)	0 (.0)	25 (100.0)	3.28	.842	
교육 경력	5년 미만(a)	2 (8.7)	6 (26.1)	9 (39.1)	4 (17.4)	2 (8.7)	23 (100.0)	2.91	1.083	1.452
	5년 이상 ~10년 미만(b)	0 (.0)	7 (21.2)	10 (30.3)	12 (36.4)	4 (12.1)	33 (100.0)	3.39	.966	
	10년 이상 ~20년 미만(c)	2 (4.4)	6 (13.3)	11 (24.4)	23 (51.1)	3 (6.7)	45 (100.0)	3.42	.965	
	20년 이상(d)	6 (8.5)	11 (15.5)	27 (38.0)	17 (23.9)	10 (14.1)	71 (100.0)	3.19	1.129	
직위	부장교사	5 (7.9)	8 (12.7)	20 (31.7)	21 (33.3)	9 (14.3)	63 (100.0)	3.33	1.121	.731
	교사	5 (4.6)	22 (20.2)	37 (33.9)	35 (32.1)	10 (9.2)	109 (100.0)	3.21	1.019	
담당 여부	담당	5 (5.6)	16 (17.8)	27 (30.0)	35 (38.9)	7 (7.8)	90 (100.0)	3.25	1.022	-.003
	비담당	5 (6.1)	14 (17.1)	30 (36.6)	21 (25.6)	12 (14.6)	82 (100.0)	3.25	1.097	
소속 부서	교무	3 (7.1)	12 (28.6)	11 (26.2)	11 (26.2)	5 (11.9)	42 (100.0)	3.07	1.155	.781
	연구장학	1 (5.0)	3 (15.0)	11 (55.0)	3 (15.0)	2 (10.0)	20 (100.0)	3.10	.967	
	생활지도	1 (3.8)	5 (19.2)	10 (38.5)	6 (23.1)	4 (15.4)	26 (100.0)	3.26	1.079	
	기타	4 (9.3)	5 (11.6)	10 (23.3)	21 (48.8)	3 (7.0)	43 (100.0)	3.32	1.084	

	소속부서 없음	1 (2.4)	5 (12.2)	15 (36.6)	15 (36.6)	5 (12.2)	41 (100.0)	3.43	.949	
교육 중심 학교 지정	지정	5 (5.4)	14 (15.1)	26 (28.0)	36 (38.7)	12 (12.9)	93 (100.0)	3.38	1.063	1.780
	비지정	5 (6.3)	16 (20.3)	31 (39.2)	20 (25.3)	7 (8.9)	79 (100.0)	3.10	1.032	
전체		10 (5.8)	30 (17.4)	57 (33.1)	56 (32.6)	19 (11.0)	172 (100.0)	3.25	1.056	

다. 행복교육 시작의 달 운영의 교무행정업무경감 기여에 대한 인식

<표 IV-18>와 같이 행복교육 시작의 달 운영이 교무행정업무경감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매우 높음’, ‘높음’의 긍정적인 응답은 14.5%이었으며, ‘매우 낮음’, ‘낮음’의 부정적인 응답은 43.6%로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평균 비교 결과 교육중심학교 지정 여부에서 인식차이가 나타났다. 교육중심학교에 지정된 학교의 교사는 비지정된 학교의 교사보다 행복교육 시작의 달 운영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다소 높게 분석되었다.

<표 IV-18> 행복교육 시작의 달의 효과

구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전체	평균	표준 편차	차이 검증
성별	남	7 (10.9)	25 (39.1)	23 (35.9)	9 (14.1)	0 (.0)	64 (100.0)	2.53	.872	-.467
	여	19 (17.6)	24 (22.2)	49 (45.4)	13 (12.0)	3 (2.8)	108 (100.0)	2.60	1.004	
학교 소재 지	제주시 동지역	11 (15.7)	18 (25.7)	26 (37.1)	13 (18.6)	2 (2.9)	70 (100.0)	2.67	1.045	.867
	제주시 읍면지역	12 (19.4)	15 (24.2)	32 (51.6)	3 (4.8)	0 (.0)	62 (100.0)	2.41	.859	
	서귀포 동지역	2 (10.0)	8 (40.0)	5 (25.0)	5 (25.0)	0 (.0)	20 (100.0)	2.65	.988	
	서귀포 읍면지역	1 (5.0)	8 (40.0)	9 (45.0)	1 (5.0)	1 (5.0)	20 (100.0)	2.65	.875	
학급 수	12학급 이하	15 (17.4)	25 (29.1)	38 (44.2)	6 (7.0)	2 (2.3)	86 (100.0)	2.47	.942	1.229
	13학급 이상 ~29학급 이하	8 (13.1)	19 (31.1)	23 (37.7)	10 (16.4)	1 (1.6)	61 (100.0)	2.62	.968	
	30학급 이상	3 (12.0)	5 (20.0)	11 (44.0)	6 (24.0)	0 (.0)	25 (100.0)	2.80	.957	
교육 경력	5년 미만(a)	6 (26.1)	4 (17.4)	9 (39.1)	3 (13.0)	1 (4.3)	23 (100.0)	2.52	1.162	.741
	5년 이상 ~10년 미만(b)	1 (3.0)	13 (39.4)	16 (48.5)	2 (6.1)	1 (3.0)	33 (100.0)	2.66	.777	
	10년 이상 ~20년 미만(c)	6 (13.3)	11 (24.4)	18 (40.0)	10 (22.2)	0 (.0)	45 (100.0)	2.71	.968	
	20년 이상(d)	13 (18.3)	21 (29.6)	29 (40.8)	7 (9.9)	1 (1.4)	71 (100.0)	2.46	.953	
직위	부장교사	10 (15.9)	13 (20.6)	28 (44.4)	11 (17.5)	1 (1.6)	63 (100.0)	2.68	.997	1.117

	교사	16 (14.7)	36 (33.0)	44 (40.4)	11 (10.1)	2 (1.8)	109 (100.0)	2.51	.929	
담임 여부	담임	10 (11.1)	29 (32.2)	37 (41.1)	13 (14.4)	1 (1.1)	90 (100.0)	2.62	.906	.670
	비담임	16 (19.5)	20 (24.4)	35 (42.7)	9 (11.0)	2 (2.4)	82 (100.0)	2.52	1.008	
소속 부서	교무	9 (21.4)	13 (31.0)	15 (35.7)	4 (9.5)	1 (2.4)	42 (100.0)	2.40	1.013	1.089
	연구장학	2 (10.0)	5 (25.0)	10 (50.0)	2 (10.0)	1 (5.0)	20 (100.0)	2.75	.966	
	생활지도	2 (7.7)	12 (46.2)	10 (38.5)	2 (7.7)	0 (.0)	26 (100.0)	2.46	.760	
	기타	9 (20.9)	8 (18.6)	20 (46.5)	6 (14.0)	0 (.0)	43 (100.0)	2.53	.984	
	소속부서 없음	4 (9.8)	11 (26.8)	17 (41.5)	8 (19.5)	1 (2.4)	41 (100.0)	2.78	.962	
교육 중심 학교 지정	지정	10 (10.8)	22 (23.7)	43 (46.2)	16 (17.2)	2 (2.2)	93 (100.0)	2.76	.937	2.857 **
	비지정	16 (20.3)	27 (34.2)	29 (36.7)	6 (7.6)	1 (1.3)	79 (100.0)	2.35	.934	
전체		26 (15.1)	49 (28.5)	72 (41.9)	22 (12.8)	3 (1.7)	172 (100.0)	2.57	.955	

**p<0.01

라.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이 교무행정업무경감에 대한 부정적인 요인에 대한 인식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이 교무행정업무경감의 효과를 내기 어려운 요인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표 IV-19>와 같이 모든 문항에서 3점 이상의 부정적인 응답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부서 및 직속 기관의 협력 부족이라는 의견에서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는 답변이 45.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육과정지원팀의 형식적 구성이라는 의견에서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는 답변이 41.3%로 분석되었다.

<표 IV-19>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의 부정적인 요인 인식 차이

부정적인 요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11-1 교육청의 지속적인 정책 추진 노력 부족	6 (3.5)	24 (14.0)	84 (48.8)	54 (31.4)	4 (2.3)	3.15
11-2 교육청 부서 및 직속 기관의 협력 부족	5 (2.9)	25 (14.5)	64 (37.2)	64 (37.2)	14 (8.1)	3.33
11-3 학교 구성원의 정책이해 부족	8 (4.7)	24 (14.0)	77 (44.8)	48 (27.9)	15 (8.7)	3.22

11-4 교육과정지원팀의 형식적인 구성	6 (3.5)	33 (19.2)	62 (36.0)	51 (29.7)	20 (11.6)	3.26
11-5 교육과정지원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9 (5.2)	29 (16.9)	72 (41.9)	47 (27.3)	15 (8.7)	3.17
11-6 행복교육 시작의 달의 비정상적 운영	5 (2.9)	29 (16.9)	94 (54.7)	31 (18.0)	13 (7.6)	3.1

<표 IV-20> 교육청의 지속적인 정책 추진 노력 부족

배경 변인		N	평균	차이 검정
학교소재지	제주시 동지역(a)	70	3.15	3.675 * c>d
	제주시 읍면지역(b)	62	3.2	
	서귀포시 동지역(c)	20	3.45	
	서귀포시 읍면지역(d)	20	2.65	

*p<.05

교육청 부서 및 직속 기관의 협력 부족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보면 <표 IV-21>과 같이 학교소재지와 담임여부에서 차이를 보였다. 제주시 읍면지역이 서귀포시 읍면지역보다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다.(F=3.495, p=.025) 또한 담임교사가 비담임교사 보다 교육청 부서 및 직속기관의 협력부족이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의 효과를 방해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2.029, p=.044)

<표 IV-21> 교육청 부서 및 직속 기관의 협력 부족

배경 변인		N	평균	차이 검정
학교소재지	제주시 동지역(a)	70	3.37	3.210 * b>d
	제주시 읍면지역(b)	62	3.42	
	서귀포시 동지역(c)	20	3.5	
	서귀포시 읍면지역(d)	20	2.75	
담임 여부	담임	90	3.47	2.029 *
	비담임	82	3.18	

*p<.05

교육과정지원팀의 형식적인 구성에 대한 인식 차이는 <표 IV-22>와 같다. 학교소재지와 담임여부 그리고 교육중심학교 지정여부에서 인식차이를 보였다. 먼저 제주시 동지역에의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서귀포시 읍면지역의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에 비해 교육과정팀의 형식적인 구성이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의 효과를 방해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497, p=.017$). 담임교사는 비담임교사에 비해 교육과정지원팀이 형식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고($t=2.119, p=.036$), 교육중심학교에 비지정된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교육중심학교에 지정된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t=-3.569, p=.000$).

<표 IV-22> 교육과정지원팀의 형식적인 구성

배경 변인		N	평균	차이 검정
학교소재지	제주시 동지역(a)	70	3.36	3.497 * a>d
	제주시 읍면지역(b)	62	3.32	
	서귀포시 동지역(c)	20	3.45	
	서귀포시 읍면지역(d)	20	2.6	
담임 여부	담임	90	3.42	2.119 *
	비담임	82	3.1	
교육중심학교 지정여부	지정	93	3.02	-3.569 ***
	비지정	79	3.56	

*** $p<0.001$, * $p<.05$

교육과정지원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에 대한 인식 차이는 <표 IV-23>에서와 같이 5년 미만의 교사와 20년 이상의 교사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F=7.354, p=.000$).

<표 IV-23> 교육과정지원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에 대한 인식차이

배경 변인		N	평균	차이 검정
교육경력	5년 미만(a)	23	3.83	7.354 *** a>d
	5년~10년 미만(b)	33	3.33	
	10년~20년 미만(c)	45	3.27	
	20년 이상(d)	71	2.83	

***p<.001

4.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의 개선방안에 대한 중학교 교사의 인식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의 주요 추진방안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교육과정 지원팀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서의 중요도와 시급도, 구성조직, 보상, 교무행정업무 처리의 간소화에 대한 중학교 교사의 의식을 조사하였다.

가. 교육과정지원교사가 필요한 부서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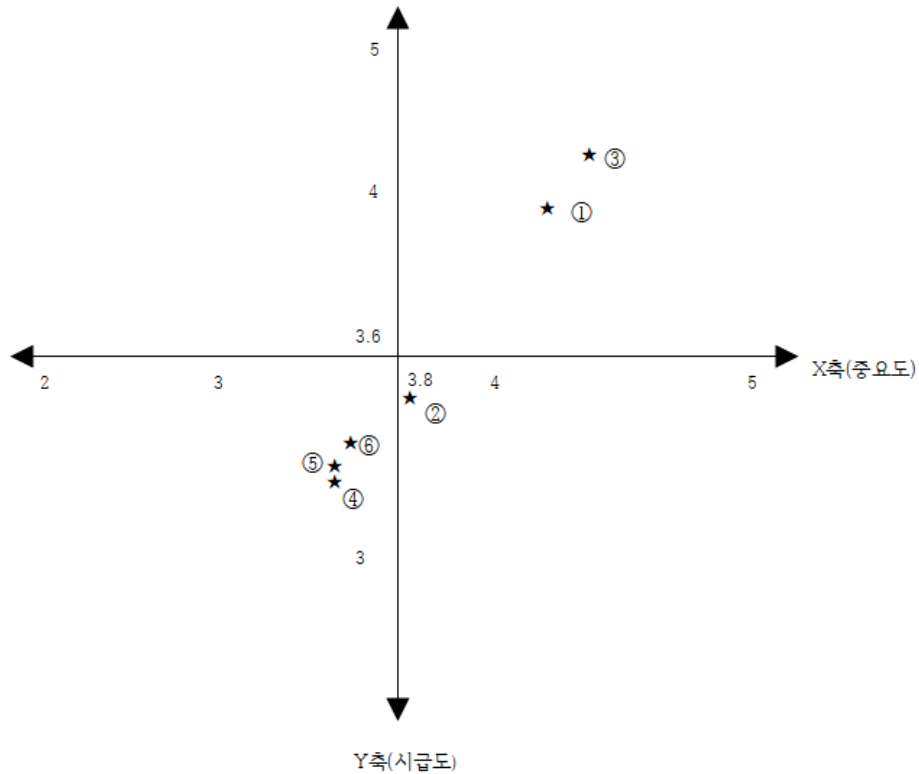
교육과정지원교사가 있어야 할 중요도가 높은 부서에 대한 의견은 생활지도분야가 가장 높았고, 교무분야, 연구장학분야 순이었다. 각 부서별 중요도와 시급도는 <표 IV-24>와 같다.

교육과정 지원교사가 시급한 부서에 대한 의견은 생활지도분야가 가장 시급하다고 나타났고, 교무분야, 연구장학분야 순이었다. 중요도와 시급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과 같이 교무와 생활지도는 교육과정 지원정책으로 모두 중요하고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연구장학의 경우 시급도에서는 떨어지지만 중요한 영역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정보, 방과후학교, 진로교육의 경우 중요도와 시급도가 모두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24> 각 부서별 교육과정지원교사제의 중요도와 시급도

	교무	연구장학	생활지도	교육정보	방과후학교	진로교육
중요도	4.24	3.85	4.3	3.4	3.41	3.47
시급도	3.94	3.47	4.2	3.17	3.22	3.26

<그림 IV-1> 각 부서별 교육과정지원교사제의 중요도와 시급도



- ① 교무분야 ② 연구장학분야 ③ 학생생활지도분야
 ④ 교육정보분야 ⑤ 방과후학교분야 ⑥ 진로교육분야

나. 교육과정지원팀의 구성에 대한 인식

<표 IV-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과정지원팀의 구성원은 부장교사와 학교 실정에 따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40.7%로 가장 높았고, 부장교사와 행정실무사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37.8%로 나타났다.

<표 IV-25> 교육과정지원팀의 구성원에 대한 인식

구성원	빈도	퍼센트
부장교사와 행정실무사	65	37.8
부장교사와 퇴직교사	2	1.2
부장교사와 정규교사	23	13.4
부장교사와 기간제교사	12	7
부장교사와 학교 실정에 따라 선택	70	40.7
합계	172	100

다. 교육과정지원팀 조직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

<표 IV-26>에서와 같이 교육과정지원팀을 조직하고 운영하는데 가장 필요한 개선방안으로 교육과정 지원팀 구성원 증원이 48.8%로 나타났고, 교무행정인력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28.5%로 나타났다. 그 외로 교육과정지원팀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9.9%), 교무행정지원인력에 대한 업무처리 권한강화(8.1%)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정밀한 업무 분석, 교사의 업무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과정지원팀에 일반행정직으로 충원, 학교 구성원간의 소통 강화가 필요 등으로 나타났다.

<표 IV-26> 교육과정지원팀 조직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구성원	빈도	퍼센트
교육과정 지원팀 구성원 증원	84	48.8
교무행정인력 전문성 강화	49	28.5
교무행정지원인력에 대한 업무처리 권한 강화	14	8.1
교무과정지원팀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17	9.9
기타	8	4.7
합계	172	100

라. 교육과정지원팀 소속 교사에게 필요한 보상에 대한 인식

<표 IV-27>에서와 같이 교육과정 지원팀 소속 교사에게 필요한 보상에 대해 살펴보면 수업시수조정이 68%로 과반수 이상이였으며, 비담임이 15%, 필요 없음이 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소재지에 따라서는 제주시 동지역에서 수업시수조정에 대한 의견이 74.3%로 가장 높았다. 교육경력에 따라서는 10년 이상 20년 미만 교사와 20년 이상의 교사는 필요한 보상으로 시수 조정을 각각 77.8%, 70.4%로 나타났고 비담임이라는 의견은 각각 11.1%, 9.9%로 나타났고, 5년 미만 교사와 5년 이상~10년 미만 교사는 시수 조정을 각각 65.2%, 51.5%로 나타났고 비담임은 26.1%, 27.3%로 나타났다. 고경력 교사는 시수 감축, 저경력 교사는 비담임의 의견도 높게 나타났다.

<표 IV-27> 교육과정지원팀 소속 교사에게 필요한 보상에 대한 인식

구분		수업시수 조정	비담임	수당 지급	승진가산점 부여	필요 없음	전체
성별	남	46 (71.9)	9 (14.1)	3 (4.7)	3 (4.7)	3 (4.7)	64 (100)
	여	71 (65.7)	18 (16.7)	4 (3.7)	5 (4.6)	10 (9.3)	108 (100)
학교 소재 지	제주시 동지역	52 (74.3)	9 (12.9)	3 (4.3)	2 (2.9)	4 (5.7)	70 (100)
	제주시 읍면지역	37 (59.7)	13 (21.0)	1 (1.6)	4 (6.5)	7 (11.3)	62 (100)
	서귀포 동지역	14 (70.0)	2 (10.0)	1 (5.0)	2 (10.0)	1 (5.0)	20 (100)
	서귀포 읍면지역	14 (70.0)	3 (15.0)	2 (10.0)	0 (.0)	1 (5.0)	20 (100)
학급 수	12학급 이하	55 (64.0)	15 (17.4)	4 (4.7)	4 (4.7)	8 (9.3)	86 (100)
	13학급 이상 ~29학급 이하	45 (73.8)	7 (11.5)	2 (3.3)	4 (6.6)	3 (4.9)	61 (100)
	30학급 이상	17 (68.0)	5 (20.0)	1 (4.0)	0 (.0)	2 (8.0)	25 (100)
	교육 경력	5년 미만(a)	15 (65.2)	6 (26.1)	1 (4.3)	1 (4.3)	0 (.0)
5년 이상 ~10년 미만(b)	17 (51.5)	9 (27.3)	3 (9.1)	2 (6.1)	2 (6.1)	33 (100)	
10년 이상 ~20년 미만(c)	35 (77.8)	5 (11.1)	1 (2.2)	2 (4.4)	2 (4.4)	45 (100)	
20년 이상(d)	50 (70.4)	7 (9.9)	2 (2.8)	3 (4.2)	9 (12.7)	71 (100)	
직위	부장교사	47 (74.6)	5 (7.9)	2 (3.2)	2 (3.2)	7 (11.1)	63 (100)
	교사	70 (64.2)	22 (20.2)	5 (4.6)	6 (5.5)	6 (5.5)	109 (100)
담임	담임	61 (67.8)	18 (20.0)	2 (2.2)	5 (5.6)	4 (4.4)	90 (100)

여부	비담임	56 (68.3)	9 (11.0)	5 (6.1)	3 (3.7)	9 (11.0)	82 (100)
소속 부서	교무	31 (73.8)	7 (16.7)	0 (.0)	0 (.0)	4 (9.5)	42 (100)
	연구장학	14 (70.0)	4 (20.0)	1 (5.0)	1 (5.0)	0 (.0)	20 (100)
	생활지도	18 (69.2)	3 (11.5)	1 (3.8)	3 (11.5)	1 (3.8)	26 (100)
	교육정보	26 (60.5)	8 (18.6)	2 (4.7)	3 (7.0)	4 (9.3)	43 (100)
	방과후학교	28 (68.3)	5 (12.2)	3 (7.3)	1 (2.4)	4 (9.8)	41 (100)
	교육 중심 학교 지정	지정	61 (65.6)	11 (11.8)	6 (6.5)	5 (5.4)	10 (10.8)
	비지정	56 (70.9)	16 (20.3)	1 (1.3)	3 (3.8)	3 (3.8)	79 (100)
	전체	117 (68.0)	27 (15.7)	7 (4.1)	8 (4.7)	13 (7.6)	172 (100)

마. 교육행정업무처리 간소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방안에 대한 인식

<표 IV-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행정업무 간소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방안은 외부기관 공문서의 감축이 50.6%로 가장 많은 의견이었고 학교 내부기안문서 감축이 21.5%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8> 교육과정지원팀 조직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개선방안	빈도	퍼센트
결재 처리 과정 간소화	30	17.4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외부기관 공문서 감축	87	50.6
불필요한 학교 내부기안 문서 감축	37	21.5
업무관리시스템 개선	13	7.6
기타	5	2.9
합계	172	100

5. 요약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운영의 시행 정도와 개선방법, 효과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속되어 있는 중학교 교사들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의 업무부담에 대한 중학교 교사의 인식과 배경 변인에 따른 교사의 인식 차이를 보이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무행정업무의 양, 업무영역별 수행비율, 교무행정업무와 교육 활동 및 연구와의 관련성, 행정업무처리의 어려움에 관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51.2%의 교사들은 자신이 맡은 교무행정업무의 양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직위와 담임여부, 교육중심학교 지정여부에서 인식차이가 발생하였다. 부장 교사가 인식하는 교무행정업무의 양은 교사가 보다 많다고 인식하였고, 비담임교사가 담임교사보다 교무행정업무가 많다고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육중심학교의 교사는 교육중심학교에 비지정된 학교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교사 및 담임교사의 경우 부장교사 및 교육과정지원팀인 비담임교사보다 교무행정업무를 비교적 적게 맡고 있는 현실이 반영되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업무영역별 수행비율에 대해 분석한 결과, 교무행정업무처리 시간은 25.69%로 수업(30.51%) 다음으로 많았다. 생활지도는 20.84%로 조사되었다. 교사의 업무 중 교무행정업무처리의 비율이 총 업무의 1/4에 해당하는 것으로 앞에서 분석한 교무행정업무의 양이 많다는 조사결과와 대응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수업과 교무행정업무처리는 다른 분야에 비해 교사별 차이가 크게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시행과 함께 교무행정업무를 많이 맡는 교사와 거의 맡지 않는 교사의 응답 결과로 분석된다.

교무행정업무가 교육 활동 및 연구와의 관련성에 관한 결과는 부정적인 응답이 48.8%로 긍정적인 응답(28.5%)보다 다소 높게 조사되었다. 배경변인별 유의미한 인식의 차이는 없었으나 부장교사는 긍정적 응답이 41.3%로 나타났다. 반면 교사는 긍정적 의견이 21.1%로 상반된 이견을 보였다. 부장교사와 교사의 교육 활동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교무행정업무 처리 및 방법의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50%가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많다고 응답했고, 33.1%의 교사는 어려움이 적거나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인식차이는 성별에 따라 달랐는데, 남자교사보다 여자교사가 교무행정업무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에 대한 시행 정도에 대한 중학교 교사의 인식은 어떠하며, 교사의 배경 변인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보이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이해 정도, 교육과정지원교사제 운영 여부,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의 시행정도에 대한 문항을 통해 살펴보았다.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에 대한 이해 정도를 분석한 결과 66.9%가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15.7%의 교사는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이 시행된 지 5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도내 모든 학교에 완전한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배경 변인별로 인식이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교육경력, 직위, 담임 여부, 교육중심학교 지정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5년 미만의 교사는 10년 이상의 교사에 비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위에 따라서는 부장교사가 교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으며, 비담임 교사가 담임교사보다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교육중심학교의 교사가 비지정된 학교의 교사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의 핵심 정책인 교육과정지원교사제 운영 여부에 대한 문항에서 50.6%의 교사만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교육중심학교로 지정되었다는 의견(55.2%)과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 결과는 일부 학교에서 교육과정지원교사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구성해 놓고 실제 운영과는 달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과정지원팀의 소속 교원으로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부장교사와 비담임 교사가 주축으로 이루어져 있고, 행정실무사의 비율은 29.7%로 조사되었다. 배움터지킴이, 과학보조 등 기타인력도 교육과정지원팀에 소속된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4.7%에 그쳤다.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의 주요 추진내용 시행 정도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을 분석한 결과 설문한 7가지 주요 추진방안에서 배경 변인별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학년 중심, 교과 중심 학교 조직 재구조화에 대한 시행 정도는 직위, 담임 여부, 교육중심학교 지정 여부에서 차이가 발생하였다. 교육과정지원팀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시행 정도는 성별, 직위, 담임 여부, 교육중심학교 지정 여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문서 처리방법 간소화 및 외부공문 처리 간소화에 대한 인식은 성별, 직위, 교육중심학교 지정 여부에서 차이를 보였다. 소통과 협력의 학교문화 조성에 대한 시행 정도는 직위, 담임 여부, 교육중심학교 지정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였고, 행복의 달 운영에 대한 시행 정도는 직위, 교육중심학교 지정 여부에 따라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학교 연수의 날 시행 정도는 교육중심학교 지정 여부에서 인식 차이가 나타났고, 교육청의 교육정책 사업의 통합·축소의 시

행 정도는 직위와 교육중심학교 지정 여부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의 효과에 대한 중학교 교사의 인식을 알아보고 배경 변인별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공문서 처리량의 변화, 교육과정지원교사제의 효과, 행복교육 시작의 달의 효과,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의 부정적인 요인에 대한 4개의 문항을 분석하였다.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시행 이후 공문서 처리량에 관한 문항을 분석한 결과, 감소하였다는 긍정적인 의견은 39%로 나타났다. 반면에 ‘증가’와 ‘매우 증가’의 부정적인 응답은 12.2%로 나타났다. ‘변화 없음’ 의견이 48.8%라는 것을 반영하면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시행 이후 공문서처리량의 감소 효과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배경 변인별 차이는 성별과 직위, 교육중심학교 지정 여부에서 발생하였는데, 특히 교육중심학교인 경우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고, 비지정 학교는 ‘변화 없음’의 의견이 많았다. 교육중심학교의 경우 공문서 처리에 대한 감소 효과가 있다고 분석된다.

교육과정지원교사제의 시행이 교무행정업무경감에 대한 기여도를 묻는 문항을 분석하면 기여도가 높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43.6%, 부정적인 응답이 23.3%로 나타났지만 배경 변인별 인식 차이는 없음을 알 수 있었다. 교육중심학교에 지정된 학교와 비지정된 학교의 인식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교육과정지원교사제의 실효성은 현장에서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행복교육 시작의 달 운영이 교무행정업무경감에 기여하는가에 대한 문항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43.6%, 긍정적인 의견이 14.5%로 나타났고 교육중심학교 지정여부에서 인식차이가 발생하였다. 행복교육 시작의 달 운영에 대해 제주도 내 중학교 교사들은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의 시행에서 부정적인 요인으로는 모든 항목에서 평균 3점 이상의 부정적인 의견으로 조사되었는데, 교육청 부서 및 직속 기관의 협력 부족과 교육과정지원팀의 형식적인 구성이 다른 요인보다 더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다. 배경 변인별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교육청의 지속적인 정책 추진 노력이 부족하다는 요인에 대해 학교소재지에 따라 인식 차이가 나타났는데, 서귀포시 동지역과 서귀포시 읍면지역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교육청 부서 및 직속 기관의 협력 부족에 대한 인식 차이는 학교소재지와 담임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읍면지역과 서귀포시 읍면지역에서 유의미한 인식차가 나타났다. 교육과정지원팀의 형식적인 구성이라는 요인에 대한 인식차이는 학교소재지, 담임여부, 교육중심학교 지정여부에서 나타났다. 교육과정지원교사

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에 대한 인식 차이는 교육경력에서 나타났는데 5년 미만 교사와 20년 이상의 교사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넷째,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의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교육과정지원팀이 필요한 부서에 대한 중요도와 시급도, 교육과정지원팀의 구성원, 교육과정지원팀 조직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교육과정지원팀 교사에 대한 보상, 교육 행정업무 간소화를 위한 방안에 관련한 10개의 문항을 분석하였다.

교육과정지원팀이 필요한 부서에 대한 중요도와 시급도를 분석한 결과 학생생활지도분야에서 중요도와 시급도에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교부분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지원팀의 구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학교 실정에 맞게 선택하라는 의견을 제외하면 부장교사와 행정실무사가 40.7%로 가장 많았다. 교육과정지원팀 조직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개선방안에 대한 문항을 분석한 결과 교육과정지원팀 구성원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48.8%)이 가장 많았고, 행정인력 전문성 강화(28.5%)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행정실무사 배치와 행정실무사의 전문성 강화에 대해 정책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교육과정지원팀 소속 교사에게 필요한 보상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수업시수조정이 68%로 나타났고 비담임은 15%로 나타났다. 교육 행정업무처리 간소화를 위해 필요한 방안에 대한 문항을 분석한 결과 정보시스템을 통한 외부기관 공문서 감축이 50.6%로 가장 높았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에 대한 중학교 교사들의 인식 조사를 통해 실제 교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교무행정업무의 경감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정책의 개선 방안에 대한 중학교 교사들의 인식 분석을 통해 학교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 업무경감 방안을 찾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첫째, ‘교원업무경감 정책에 대한 교사들의 전반적인 인식은 어떠한가?’라는 연구문제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중학교 교사들은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중 교무행정업무의 양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다. 제주도 지역 중학교 교사들은 전반적으로 교무행정업무의 양이 많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는 교무행정업무 영역에서는 업무의 간소화가 있었지만, 학생부나 학생 생활지도 업무에서는 업무 경감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구승기, 2012)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부장교사와 비담임교사가 교무행정업무의 양이 많다고 응답한 것은 대부분 학교에서 교육과정지원팀으로 담임교사보다 교무행정업무를 더 많이 맡고 있으며 교육과정지원교사를 제외한 부장교사와 비담임교사는 수업과 행정업무를 모두 소화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교무행정업무의 양이 많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정지원교사를 증원하거나, 업무를 세분화하여 업무부담을 줄여주고, 교무행정인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업무처리를 쉽고 간편하게 하여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지원팀에 소속된 교사는 교무행정업무의 양이 많다는 부정적 인식을 많이 갖고 있었다. 학교 대부분의 교무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이다. 교육중심지정학교의 일부 교사의 희생으로 다수교사의 행정업무경감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 제도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교무행정전담부서 소속 교사의 수업시수는 10시간 미만을 제한하고 있다(이선희, 2008; 조성희, 2000). 이를 바탕으로 제주주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교육과정지원팀 교사 중 2명에게 10시간 이내의 수업시수를 감축해주

고 있다. 하지만 교육과정지원팀 내에서도 수업시수 감축 대상이 아닌 교사의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 일부 교사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으며 자칫 교사 간의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 실제 교육과정지원교사의 보상을 묻는 문항의 기타의견에는 담당 교사에게 10시간의 수업시수를 줄여주는 것에 대하여 불만 토로하기도 하였다. 관리자의 독단적인 결정보다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교무행정업무가 교원의 교육 활동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은 부정적이었다.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이 시행되면서 교무행정업무가 부장교사와 비담임 교사로 이루어진 교육과정지원팀으로 집중되었지만 형식적 운영이나 소규모학교의 사정으로 인하여 실제운영은 달라하는 이유로 풀이된다. 교육 활동과 관련이 없는 업무 수행이 지속되면 교사들의 핵심직무를 방해하며, 업무 과부하로 인한 불만족이 커진다(이인희 외, 2010)는 연구결과를 볼 때 교육과정지원팀의 운영방법이나 교사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불만족이 지속되면 교원의 사기 저하 및 교육력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에 대한 중학교 교사들의 인식은 업무별, 학교 규모별, 담임 여부, 교육과정중심학교 지정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라는 연구문제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시행 정도에 대한 인식에 관하여 분석한 결과, 긍정적 응답이 66.9%로 상당수의 교사는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을 이해하고 있었다. 특히 교육중심학교 소속 교사와 부장교사 및 교경력교사가 이해도가 높았다.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에 의해 학교 조직개편과 함께 교무행정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중심학교라고 응답한 교사는 55.2%이지만 50.3%의 교사만 교육과정지원교사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 결과는 일부 학교에서 교육과정지원교사제를 형식적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보인다. 시행 5년째 접어들고 있는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의 내용과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교육과정지원팀의 소속 교원은 부장교사와 비담임 교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행정실무원도 과반수의 학교에서 소속되어 있었다. 교육과정지원팀에 소속되어 있는 비담임 교사의 교무행정업무 비율이 높다는 응답도 이를 뒷받침한다. 더불어 모든 업무를 교육과정지원팀에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담임교사 행정업무의 양도 많다는 응답 결과로 나타났다고 보인다. 이는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의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인다.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의 주요 추진방안 중 학교 조직 재구성, 교육과정지원팀 구성, 소통과 협력의 학교문화 조성, 행복교육 시조의 달 운영, 학교 연수의 날 운영 등은 시행 정도가 높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공문서 처리방법 간소화 및 외부공문 처리 간소화, 교육청의 교육정책사업 통합·축소는 낮게 평가되었다. 선행연구(이인희 외, 2010; 이선희, 2008)는 교원의 수업전문성 개발과 교육력 확보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절대적으로 많은 양의 공문서임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의 추진방안 중 공문서 간소화 및 외부공문 처리 간소화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학교조직개편으로 교육과정지원팀이 구성되고 행정실무원 등 인력보강 덕분에 학교의 내부업무와 관련된 항목은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고, 외부기관의 공문감축이나 교육청 사업의 통합·축소에 관련해서는 정책의 효과가 현장 교사에게는 체감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육과정지원팀 구성 및 운영 시행정도와 소통과 협력의 학교문화 조성 시행 정도에서 담임교사가 비담임에 비해 낮은 시행정도로 응답한 것 업무분담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 간 소통 및 협의의 과정이 부족하다고 해석된다.

긍정적인 면도 적지 않다. 교육중심학교는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의 모든 추진방안에서 시행정도가 높다고 응답하였다. 교육중심학교의 교사가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시행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공문서처리량에 대한 응답에서도 교육중심학교에 지정된 학교가 비지정학교에 비교하여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고 교육과정지원교사제가 교무행정업무경감에 기여하고 있다는 인식도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의 효용성을 높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시행이 교무행정업무 경감에 효과가 있는가라는 연구문제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이 시행된 이후 공문서 처리량의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하지만 ‘변화 없음’을 포함한 부정적 의견은 절반을 넘는 교사가 응답한 것은 여전히 공문서 처리에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추진방안 중 공문서 처리방법 간소화와 교육청의 교육정책 통합·축소의 시행 정도가 중간 이하라고 나온 결과와 상응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교육중심학교의 교사와 담임교사의 공문서처리량 변화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으로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고 있다고 보인다. 또한, 교육과정지원교사제가 교무행정업무경감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어 앞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수정·보완한다면 교무행정업무경

감에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이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교육청 부서 및 직속 기관의 협력 부족’, ‘교육과정지원팀의 형식적인 구성’, ‘학교 구성원의 정책이해 부족’을 지적하였다. 교육과정지원팀 소속 교사에게는 적절한 보상을 주고 교육과정운영팀, 즉 담임교사에게는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2학급 이하의 중·소규모학교의 경우 적은 수의 부장교사와 비담임 교사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교육과정지원팀을 형식적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담임교사에게도 교무행정업무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3학급 이하의 소규모학교의 경우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은 유명무실한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른 시도의 대규모 학교에서 적용한 정책을 제주도의 모든 학교에 적용하는 것은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과 같다.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불편하듯 제주도의 현실에 맞는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

넷째, 교원업무경감 정책이 현장에 정착하기 위한 제안할 점은 무엇인가라는 연구문제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의 개선방안에 대한 중학교 교사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학교에서 생활지도분야와 교무분야에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교육과정 지원교사제 역시 가장 먼저 구성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교무분야와 학생생활지도분야로 배치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여 시행할 경우 교무부장, 학생부장을 제외한 부장교사의 경우 많은 양의 행정업무와 많은 수업을 맡게 되어 특정 부서만 혜택을 주는 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교육과정지원교사의 순환근무제와 같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많은 학교에서 교육과정지원팀의 구성원은 학교의 실정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외하고 행정실무사 배치를 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행정실무사와 같은 교무행정인력은 이미 많은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고 실제 행정업무경감 효과를 높이고 있다. 행정실무사 제도는 교원업무경감 효과와 더불어 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학교 분위기 조성에도 긍정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이혜정, 2017). 하지만 교무행정인력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행정실무사 등 교무행정인력을 이용하였을 때 업무처리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선행논문에서 제시하듯 교무행정인력의 확대배치와 함께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연수와 교육청 차원의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박선형 외, 2015).

교육과정지원팀에 소속된 교사에게 필요한 보상으로 수업시수조정이 가장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교육과정지원교사는 많은 양의 교무행정업무와 수업을 병행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교사에게 있어 학교업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이다. 교무행정업무를 하기 위해 수업의 비중을 줄여주는 것은 ‘교사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하는 교직원의 임무(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교육과정지원교사를 위해 기간제교사를 채용하고 있다. 규모가 작아 감축된 수업시수가 작은 학교에서는 순회교사를 통해 부족한 수업시수를 채우고 있는데 이마저 다른 학교의 교육과정지원팀의 교사가 겸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육과정지원교사가 아닌 비담임 교사는 많은 행정업무와 순회업무까지 더해지는 결과가 발생한다. 많은 선행연구가 제시하듯 교사만 할 수 있는 교무행정업무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이인희 외 2010; 신현석 외 2011). 이외의 업무는 행정실무사와 같은 교무행정인력을 충원하여 교무행정업무를 가볍게 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

연구문제를 통해 도출된 결론을 토대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의 개선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지원교사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제주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더불어 제주도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교육과정지원교사제도 개선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이 효과를 내기 어려운 부정적인 요인에서 교육과정지원팀의 형식적 구성이 큰 걸림돌이라고 인식되고 있다.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은 다른 시도의 교원업무경감대책과 내용은 같고 이름만 다르다. 다른 시도에서 효과를 높인 정책이라 해도 그대로 제주도에 적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제한된 인원으로 구성된 소규모학교에서는 학교 내 모든 업무를 교육과정지원팀에서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 때문에 담임교사도 교무행정업무를 맡아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하다. 또는 일부 교육중심학교에서처럼 교육과정지원팀에서 모든 교무행정업무를 처리할 경우 업무의 과부하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교육과정지원팀 구성과 역할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된다. 교사에게 수업과 생활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가 적용된 타 시도 혁신학교의 정책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제주도의 학교 특성에 맞게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는 제주도지역에 맞는 교육과정지원팀과 교육과정지원교사제도를 보다 적절하게 시행하기 위한 개선방안 연구를 제안한다. 이 연구를 통해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의 희생을 해야만 하는 학교조직구조와 한번 어려운 역할을 맡은 교사는 계속해서 같은 업무를 맡게 되는 구조를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교사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교무행정업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교무행정 인력이 해야 하는 업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반드시 교사의 전문성이 꼭 필요한 교무행정과 교무행정인력이 할 수 있는 업무를 구분하고, 실제 학교현장에서 시행한다면 교무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교육 활동과 관련이 없는 잡무라는 인식에서 교사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의 영역으로 변화할 수 있다. 그와 발맞추어 교무행정인력의 업무처리 역량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연수와 매뉴얼의 제작 및 보급이 함께 업무처리를 위한 집행 권한도 부여해야 한다. 처리방법을 모르거나 집행 권한이 없다면 교무행정업무의 보조적인 역할로 한정되고, 교사의 잡무로 되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을 비롯한 교원업무경감 정책에 대한 홍보도 필수적이다. 교사의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으면 시행과정은 원활하고 시행 후 효과도 크기 때문이다. 아직도 많은 교사가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교육과정지원교사제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상황은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의 효과가 반감시킬 수 있다.

셋째,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학교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업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 연구를 통해 제주도의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의 효과가 확인되었다. 공문서가 감축되었고 교육과정지원교사제를 통해 교무행정업무의 경감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새롭게 생겨나는 사업과 정책도 상당한 것이 사실이다. 교원업무경감대책이 시행되면서 빠지지 않고 강조되는 과제는 공문서 감축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에서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문서 처리량이 변화 없다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 그 이유는 업무 총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교육계획서 중심의 학교운영, 행복시작의 달 운영, 사업 통폐합 등 실제 정책이나 사업이 폐지되고 통합되었다. 하지만 새롭게 생겨난 신규사업과 예외규정들이 업무 경감 효과를 상쇄시키고 있다. 선행연구(박선형 외, 2012)에서 다양한 교육정책사업(창의·인성교육, 방과후학교 운영, 교과교실제, 교원평가 등) 실시에 따른 단위학교의 과도한 공문서 처리 부담 가중은 교원 본연의 업무인 교수학습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공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힌 만큼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은 제주도의 교육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단순히 공문 대신 메신저를 이용하거나 공문서계시를 이용하는 경우 공문서 처리량은 줄어들지만, 업무의 총량은 변함이 없다. 수치상의 공문서 유통량 감소는 실제 업무경감과는 거리가 있다. 업무의 총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공문서 감축 방안과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교육청부서와 직속 기관의 협력도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교무행정업무의 경감은 교사의 역량 강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으로 인한 업무 경감 효과가 교육력 증가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업무 경감의 최종 목적은 교사의 수업전문성을 향상하고 생활지도 등의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주기 위함이다. 즉 업무가 경감된 만큼 교사 스스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활동과 연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의 책무성을 강화를 위한 방안을 탐색 과정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성기(2018). 제주도 교육중심 학교 조직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제주교육정책연구소.
- 강승태, 고동현(2016).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구축 사례 조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강충호(2016). 학교업무정상화 운영 실태 분석 및 안정적 정착 방안. 38회 교육연구논문
- 구승기(2012). 업무포털 차세대 나이스시스템활용에 따른 교원 업무효율성 분석. 대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경기도교육청(2013). 교사행정업무경감 관행개선 지침.
- 경기도교육청(2018). 2017 경기교육통계연보. 경기도교육청.
- 고동현(2016). 교육감 취임 2주년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 김위정, 황현정, 이지혜, 신동하(2016). 교원업무정상화를 위한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조직 재구조화 방안. 경기도교육연구원
- 김이경(2005). 교원의 직무 수행 실태 분석 및 기준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종철, 남지영, 김혜영, 홍창남(2013). 교무행정전담부서 운영 사례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1(3), 25-50.
- 김호영(2000). 중등학교 순회교사제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2017). **10년 후 미래 일자리의 길을 찾다**. 경기: 지식공감.
- 박선형, 이상규(2012). 교원 행정업무 부담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29(1), 371-396.
- 박선형, 장다솜(2015). 교원 행정업무 경감 정책에 대한 교원 및 행정실무사 인식 분석. **한국교원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401-406.
- 박덕규, 김지순, 방대곤, 손동수(2003). 교원의 표준 수업시수 설정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박영숙, 이윤식, 유영국, 황지욱, 이만호(2003). 각급 학교 교원의 적정 수업 시수 설정 및 배치 기준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배문영(2015). 교무행정업무경감 대책에 대한 초등교원의 인식 조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변원목, 강지영, 정병석, 감은모, 정유희, 김병노(2016) 학교현장 교원이 체감하는 교원업무 경감 방안 연구.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 서울특별시교육청(2017). 2017 서울교육통계연보.

- 신경옥(2000). 순회교사제도에 대한 교원의 인식 분석.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상명(2009).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업무경감방안. 교원업무 경감입법을 위한 공청회자료집.
- 신현석, 권용수, 박종렬, 황영남(2006). 학교 교무행정 지원인력 배치에 관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신현석, 박종렬, 권현정, 이경호, 이정원, 오찬숙, 김지영, 차무진, 김누리, 음원선(2012). 교무행정 지원인력의 업무실태 분석을 통한 업무조정 및 인력 운용방안 탐색. **한국교원교육연구**, 29(1), 1-32.
- 신현석, 황영남, 이경호, 황호진(2011). 교무실 업무분석을 통한 교원업무 조정방안 탐색. **교육문제연구**, 41, 2015-245.
- 신현석(2011). 교무실 업무분석을 통한 교원업무 경감의 방향과 과제. 교원업무 경감의 방향과 과제 발표 자료. 2011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현장 순회 토론회.
- 원세연, 홍섭근, 김항인(2013). 교사 행정업무 경감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경기도교육연구원**
- 이상철(2015). 전국 시·도교육청 교원업무정상화 정책 분석과 시사점. **부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 이인희, 이지혜(2010). 교무행정전담부서 구성에 대한 교원의 인식. **열린교육연구**, 18(3), 103-126.
- 이인희, 정영수, 박영숙, 노재전, 이지혜, 안병준, 이규열(2010). 교원업무경감을 위한 교무행정 업무처리 모형 개발 연구. **한국지방교육연구센터**.
- 이선희(2008). 중등교원의 업무부담과 업무경감 방안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치호(2017). 교원업무경감정책의 변화 추이 분석 및 시사점 탐색. **미래교육학연구**, 30(1), 51-84.
- 이현미, 이원재, 홍섭근, 김남일, 서정진, 오재길(2015). 교원행정업무경감정책추진현황 및 발전 방향. **경기도교육연구원**.
- 유기웅, 김인숙, 정주영(2010). 교사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집단 간 비교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26(4), 201-224
- 이혜정(2017). 행정실무사 제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 탐구.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7(8), 250-262
- 정나나(2012). 교사의 업무부담, 직무만족과 학교효과성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 정미경, 주영호, 정바울(2013). 교사 업무경감 정책의 단위학교 추진 실태 분석. **한국교원 교육연구**, 30(3), 377-404.
- 정영수, 김숙이, 김이경, 김민희(2010). 학교업무체계 효율화를 위한 교직원 직무분석. **경기도교육청**.
- 정영수, 김숙이, 김이경, 김민희(2012). 직무분석을 통한 교원의 적정 업무량 산정 방안. **한국교원교육연구**, 29(2), 397-420.
- 조성희(2000). 교원업무 경감 및 학교업무 효율화에 대한 연구. **교육부**.
- 조상식, 박종배, 성병창, 광채기, 남경희, 이상철, 안홍선, 전수빈(2016). **교원행정업무 매뉴얼(중)**. **교육부**.
-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201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공약집.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15). 2015년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구축계획.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16a). 2017 주요업무계획.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16b). 2016년 교육중심학교시스템 구축계획.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17a). 2017년 교육중심학교시스템 구축계획.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17b). 2017 제주교육통계연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18a). 2018 주요업무계획.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18b). 2018 교육중심학교시스템 구축계획.
- 주현준(2015). 교원업무 정상화를 위한 방안; 단위학교 인력구조와 업무체계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참교육연구소(2012). **교원업무정상화 모델 및 입법화 방안**.

<부록> 설문지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행정 및 컨설팅을 전공하고 있는 조상수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시어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석사학위 논문 '교육중심학교시스템 운영에 대한 중학교 교사의 인식' 연구를 위한 내용으로 교무행정업무 경감 대책의 실효성과 개선 방안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 '교육중심 학교 시스템'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중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모두 익명으로 처리되며, 본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19년 4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 및 컨설팅 전공
조상수 드림

※ 해당되는 내용에 V표 또는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10-2959-4799 또는 saram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사항

1. 성별 ① 남 ② 여
2. 학교 소재지 ① 제주시 동지역
 ② 제주시 읍면지역(애월읍, 한림읍, 한경면, 조천읍, 구좌읍, 추자면, 우도면)
 ③ 서귀포시 동지역
 ④ 서귀포시 읍면지역(안덕면, 대정읍, 남원읍, 표선면, 성산읍)
3. 전체 학급수 ① 12학급 이하
 ② 13학급 이상 ~ 29학급 이하
 ③ 30학급 이상
4. 교육경력 ① 5년 미만 ② 5년 이상~10년 미만
 ③ 10년 이상~20년 미만 ④ 20년 이상
5. 직위 ① 부장교사 ② 교사
6. 담임여부 ① 담임 ② 비담임
7. 소속부서 ① 교무 ② 연구·장학 ③ 생활지도
 ④ 교육정보 ⑤ 방과후학교 운영 ⑥ 진로교육
 ⑦ 기타(부) ⑧ 소속부서 없음
8. 교육중심학교 지정여부 ① 지정 ② 미지정

I. 교원 업무 부담에 대한 인식 관련 문항

1. 현재 선생님께서 담당하고 있는 교무행정업무의 양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 ① 매우 적다 ② 적다 ③ 적당하다 ④ 많다 ⑤ 매우 많다

2. 선생님의 업무의 총량을 100%라고 했을 때 다음 영역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의 비율은 얼마입니까?(5가지 문항의 총합이 100이 되어야 합니다.)

업무영역	시간
2-1 수업(교재연구 포함)	시간
2-2 생활지도	시간
2-3 수업 및 생활지도 이외의 교육활동(방과후 지도, 상담활동)	시간
2-4 교무행정업무 처리	시간
2-5 기타(교내 연수 활동, 회의 등)	시간
합계	40시간

3. 교무행정업무가 교사의 교육활동 및 연구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적다 ② 적다 ③ 적당하다 ④ 많다 ⑤ 매우 많다

4. 교무행정업무 처리 절차 및 방법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으신 경험이 있습니까?

- ① 매우 적다 ② 적다 ③ 적당하다 ④ 많다 ⑤ 매우 많다

II. 교육중심 학교 시스템 시행 정도

※ 다음은 제주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중심학교시스템의 주요 내용입니다.

1. 교육활동 중심 학교 기반 조성	
영역	추진 내용
교육활동 중심 학교 조직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년 중심, 교과 중심으로 학교 조직 재구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임은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담임업무 제로화 ◦ 교육과정지원팀 구성 및 운영 강화
학교업무 최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교육계획서 중심의 학교 운영 ◦ 학교 행사의 교육과정화 ◦ 공문서 처리 방법 간소화 ◦ 각종 위원회 통합 운영 및 회의 방법 개선 ◦ 학교 비치 장부 정비 및 관리 방법 개선
소통과 협력의 학교 문화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원 협의를 통한 업무 및 역할 분담 ◦ 자율과 책무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학교풍토 조성
행복교육 시작의 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충실한 준비 및 정상 운영 ◦ 교원 정기인사 사전예고제 시행 ◦ 제주교육 통합전달 주간 운영 ◦ 학교 교육계획 및 교육과정 수립 주간 운영
학교 연수의 날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주 수요일은 교직원학습공동체, 연수 등 운영

5. 선생님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중심 학교 시스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십니까?

- ① 전혀 모름 ② 모름 ③ 보통 ④ 알고 있음 ⑤ 매우 잘 알고 있음

6.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학교에서 교육과정지원교사제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 ① 운영됨(※ 6-1번으로 가십시오.) ② 운영되지 않고 있음(※ 7번으로 가십시오.)

6-1.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학교의 교육과정지원교사팀에 소속된 교원 또는 사무인력을 모두 표시해주시오.

- ① 교감 ② 부장교사 ③ 비담임 교사 ④ 담임 교사
 ⑤ 행정실무원 ⑥ 기타 보조 인력

7. 다음은 제주도교육청 교육중심학교시스템 주요 내용입니다. 각 사업이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요 추진 방안	시행 정도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7-1 학년 중심, 교과 중심 학교 조직 재구조화 - 담임이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구축					
7-2 교육과정지원팀 구성 및 운영					
7-3 공문서 처리방법 간소화 및 외부공문 처리 간소화					
7-4 소통과 협력의 학교 문화 조성					
7-5 행복교육 시작의 달 운영					
7-6 학교 연수의 날 운영					
7-7 교육청의 교육정책사업의 통합·축소					

Ⅲ.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효과 관련 문항

8.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시행 이후 공문서 처리량은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 ① 매우 감소 ② 감소 ③ 변화 없음 ④ 증가 ⑤ 매우 증가

9. 교육과정 지원교사제도가 교원행정업무경감에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10. 행복교육 시작의 달 운영이 교원행정업무경감에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11.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이 긍정적으로 교원행정업무경감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데 부정적인 요인들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전 혀 그 렇 지 않다.	② 그 렇 지 않다.	③ 보 통	④ 그 렇 다	⑤ 매 우 그 렇 다.
① 교육청의 지속적인 정책 추진 노력 부족					
② 교육청 부서 및 직속 기관의 협력 부족					
③ 학교 구성원의 정책 이해 부족					
④ 교육과정지원팀의 형식적인 구성					
⑤ 교육과정지원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⑥ 행복교육 시작의 달의 비정상적 운영					
⑦ 기타 의견:	의견:				

IV.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의 개선 방안 관련 문항

12. 교육과정 지원팀을 조직 및 운영이 필요한 부서의 중요도와 시급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중요도						시급도				
① 전혀 중요 하지 않음	② 중요 하지 않음	③ 보통	④중 요함	⑤ 매우 중요 함		① 전혀 시급 하지 않음	② 시급 하지 않음	③ 보통	④시 급함	⑤ 매우 시급 함
					① 교무					
					② 연구·장학					
					③ 생활지도					
					④ 교육정보					
					⑤ 방과후학교					
					⑥ 진로교육					

13. 교육과정 지원팀은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담 부장교사와 행정실무사를 중심으로 구성
- ② 전담 부장교사와 퇴직교사를 중심으로 구성
- ③ 전담 부장교사와 정규직교사를 중심으로 구성
- ④ 전담 부장교사와 기간제교사를 중심으로 구성
- ⑤ 전담 부장교사와 위 구성원 중 학교 실정에 따라 선택

14. 교육과정 지원팀 조직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개선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교육과정 지원팀 구성원 증원
- ② 교무행정지원인력 전문성 강화
- ③ 교무행정지원인력에 대한 업무 처리 권한강화
- ④ 교무행정지원팀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⑤ 기타의견:

15. 교육과정지원팀 소속 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보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수업시수 조정
- ② 비담임
- ③ 수당지급
- ④ 승진가산점 부여
- ⑤ 필요없음

16. 교무행정업무처리 간소화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방안을 선택해주세요.

- ① 결재 처리 과정 간소화
- ② 통계자료, 연수신청 등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외부기관 공문서 감축
- ③ 불필요한 학교 내부기안 문서 감축
- ④ 업무관리시스템 개선
- ⑤ 기타의견: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bstract】

Awareness of Middle School Teachers on the Management of Teaching-Centered System

- Focused on Schools belonging to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ffice of Education -

Jo, Sang Soo

Jeju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epartment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Consulting

Graduate Advisor Kim Dae-young

It is commonly shared, by most members of society as well as education personnel, that teachers' administrative work is too heavy. The government and the provincial/municipal offices of education have consistently implemented various policies to clarify teachers' task and to create conditions in which they can concentrate on the essential tasks: teaching and guidance. Nevertheless, the level of administrative work felt by teachers at school sites has not been reduced enough for teachers to be agreeable. Since the recent emergence of innovative schools, the need for class innovation comes to the fore. In order for this educational change to be successful, it

is necessary to reduce teachers' task. Therefore, the Jeju Special Self - Governing Province Office of Education has been pushing for a "Teaching-Centered School System" policy since 201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effectiveness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Education Office's policy by carrying out a survey of middle school teachers' awareness of the level and effectiveness of the "Teaching-Centered School System" that the Jeju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has been implementing since 2015. Also, it is to analyze middle school teachers' awareness of the method of improving policies to reduce teachers' administrative tasks that consider the geological properties of Jeju Island, where most schools are the middle and small schools.

A total of 143 questionnaires were utilized for analysis after surveying 250 randomly selected middle schools in Jeju with online survey tool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middle school teachers recognize that there is a large amount of administrative work among their own responsibilities. The majority of the respondents said the amount of administrative work of teachers belonging to the school life guidance division was high. There were also many negative opinions that the administrative work had nothing to do with the educational activities. It is necessary to need a solution for how to operate the curriculum support team or for compensation for teachers in the curriculum support team.

Second, the awareness of how well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s Teaching-Centered School System is going was positive in 66.9 percent of the respondents, with many teachers understanding the teaching-centered school system. However, 50.6% of respondents said that they only operate the curriculum support teacher system, suggesting that some schools have a superficial curriculum support system or lack understanding of the school system.

Out of the seven major projects of the teaching-centered school system, rearranging the school organization, building the support team for the curriculum, developing culture for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in school, setting the month for the start of

happiness education and the day for the teachers' meeting/seminar were highly evaluated, while simplifying the official document processing and the external official document processing, and the integration and reduction of education policy business were evaluated as low.

Third, according to a study on middle school teachers' awareness of the effectiveness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s teaching-centered school system, there were many positive responses to the reduction of official document processing since the teaching-centered school system was implemented. However, opinions about reduced official document throughput are found to be negative by including "no change" in the negative response. Factors that negatively affect the positive effects of the teaching-centered school system are "lack of cooperation between the department and the direct office of the school district", "superficial formation of the education curriculum support team" and "lack of understanding the policies of school personnel".

Fourth,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awareness of middle school teachers about how to improve the teaching-centered school system, most schools recognize that it is important to support the school life guidance and the school affairs, and the curriculum support teacher system should be first in the two areas. In many schools, it has been analyzed that members of the curriculum support team want to have a working-level administrative staff, except for the opinion that they should be chosen according to the school's circumstances. It has been found that the compensation needed for teachers in the curriculum support team is most necessary to adjust the number of classes.

Based on these results, this paper proposes a teaching-centered school system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First,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Jeju Island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for the function and role of the curriculum support teacher system. In schools, teachers should be given such work that there is no problem in class or school life guidance by segmenting the administrative work required by teachers. An overall review of how to organize and manage the current curriculum support team - excessive sacrifice and excessive compensation to a small

number of teachers - must be made. And standards should be prepared for the administrative tasks. The professionalism of teachers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the required administrative work, and implemented on the spot. Steady training for improving the ability of the faculty to handle the work should be carried out as well as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guidebook. It is necessary to publicize the teaching-centered school system and to reduce practically administrative tasks. If teachers have a high understanding of their policies, the effects of implementation must be great. In order to reduce the total amount of work, it is necessary to cooperate with the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and the direct organization. The mitigation of administrative duties shall be made possible by strengthening the competence of teachers. To this end, follow-up research is needed on whether the work-reducing effects of the teaching-centered school system are being linked to an increase in educational power.

key words: Teaching-Centered School System, teachers' administrative tasks, the curriculum support teacher system, support team for the curriculum, working-level administrative staff